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은혜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스킨케어 유형에 따른 소비자 선호도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 피부관리 서비스를 중심으로

2011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문화산업학과 피부비만관리 전공
이 유 민

스킨케어 유형에 따른 소비자 선호도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 피부관리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은혜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1年 5月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문화산업학과 피부비만관리 전공
이 유 민

인 준 서

이유민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논문개요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의 발전과 함께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 또한 크게 발전하였으며, 최근 두드러진 여성의 사회참여율이 높아지면서 일차적인 의·식·주 문제로 부터 벗어나 삶의 질과 여가 등에 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현대의 “미”의 관점은 급변해가고 있는데 이는 인간의 도덕적 윤리규범과 가치관에 커다란 변화를 주어 현대인의 외모에 관한 미의 기준을 다양하게 변화 시켰다. 이에 따라 외모 또한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과 기준이 되어 매우 중요한 영향을 가지게 되었으며 젊음과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화장품을 손쉽게 접하고 사용하는 것과 같이 피부관리에 대한 관심은 더욱더 늘어나고 있다. 피부관리의 경우 여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피부관리실의 형태 또한 범위가 넓어져 많은 영역에서 발전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11년 1월 24일부터 3월 19일까지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20대~50대 여성을 대상으로 총 488명 중 메디컬 스킨케어 경험이 있는 137명과 일반스킨케어 경험이 있는 151명, 자가관리를 하는 200명을 대상으로 나누어 스킨케어 유형별 특성에 따른 소비자 선호도와 만족도 조사를 실시, 비교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전체 대상자의 64.4%는 20대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14.5%, 40대 13.2%,

50대는 7.9%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213명인 40.4%가 학생이었으며, 주부가 105명으로 20.0%에 해당하였다. 피부관리 행태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자가관리”가 20대 59.0%, 30대 42.4%, 40대 51.7%, 50대 52.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해 연령대와 상관없이 비슷한 관리 행태를 보였다($p=0.123$). 평소 사용 화장품의 종류는 20대의 경우 일반화장품이 48.1%로 가장 많았고 30대와 40대는 기능성화장품이 각 60.6%, 51.7%, 50대는 한방화장품이 47.2%로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답하여, 연령대에 따라 사용하는 화장품의 종류에 차이를 보였다($p<0.000$). 피부미용 관련 정보 습득처는 40·50대는 TV광고, 20대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장 많이 얻는다고 답하여 연령대에 따라 정보 습득 방법에 차이를 보였다($p<0.000$).

현재 피부 문제점에서는 20대가 “여드름, 넓은 모공”이 34.0%, 30대는 “색소 침착”이 37.9%, 40대와 50대는 “주름, 탄력저하”가 각 60.0%와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나 연령대에 따라 느끼는 피부 문제점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0$).

2. 메디컬 스킨케어 종류는 모든 연령대에서 IPL을 가장 선호하였다. 위의 시술을 선호하는 이유는 모든 연령대에서 문제성 피부에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이라고 답하였으며($p=0.624$), 메디컬 스킨케어 관리사의 전문성 정도 역시 모든 연령대에서 “전문성이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아 연령대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p=0.111$). 메디컬 스킨케어의 효과정도에서 “효과가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20대 70.4%, 30대 60.0%, 40대 72.7%, 50대 87.5%로 전체적으로 연령에 관계없이 효과정도를 높게 평가하였다($p=0.029$).

3. 일반 스킨케어 관리 기간 역시 연령대가 높을수록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p < 0.000$), 선호하는 일반 스킨케어의 종류는 50대에 비해 20~40대가 기기를 병행한 관리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p = 0.034$).

일반스킨케어 관리사들이 전문성 정도 역시 모든 연령대에서 “전문성이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p = 0.755$).

4. 자가 피부 중 가장 중요한 관리법으로는 “기초클렌징과 각질 제거를 위한 딥클렌징”이 20대의 48.8%, 30대의 39.1%, 40대의 35.5%로 20대가 가장 높았으며, 50대에서는 “효과적인 에센스나 앰플이용”이 42.1%로 가장 높았으나 연령대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p = 0.098$). 자가 피부관리가 피부에 미치는 효과에서는 “매우 효과가 있다”가 20대에서 3.3%로 30~50대의 20.0% 응답률보다 현저하게 낮아 20대에서 자가 피부관리가 피부에 미치는 효과가 적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00$).

5. 자가 피부관리자의 메디컬 스킨케어 선호도를 살펴본 결과 메디컬 스킨케어를 받는다면 어떤 종류를 받고 싶은지를 묻는 항목에서 20대는 “해초박피, 알라딘필링, MTS”가 24.4%로, 30대는 “IPL, 레이저 토닝”이 34.8%, 40대와 50대는 “RF 고주파”가 각 32.3%, 31.6%로 가장 높게 나타나 연령대에 따라 선호하는 메디컬 스킨케어의 종류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p = 0.019$). 메디컬 스킨케어 후 기대효과는 모든 연령대에서 80.0%이상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p = 0.387$).

자가 피부관리자의 일반 스킨케어 선호도 비교한 결과, 일반 스킨케어를 받는다면 어떤 종류를 받을 것인가의 항목에서는 20대의 30.5%가 “일반 피부미용 마사지”라고 응답하였으며, 30대의 34.8%, 40대의 35.5%, 50대의 36.8%가 “미용 경락 마사지”라고 응답하여 20대에 비해 다른 연령대에서 미용 경락마사지의 선호도가 높았다($p=0.001$). 일반 스킨케어 후 기대효과는 20대의 4.7%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답하였으나 모든 연령대의 70% 이상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하여 연령대별 차이는 없었다($p=0.247$).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스킨케어 서비스 이용행태의 경우 집에서 자가관리를 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일반 스킨케어, 메디컬 스킨케어의 순으로 나타났다. 스킨케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메디컬 스킨케어의 경우 “효과가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높게 평가하였고 모든 연령대에서 거의 대부분이 메디컬 스킨케어를 다시 이용하겠다고 하였다. 일반스킨케어의 경우는 일반 스킨케어 효과정도는 모든 연령대에서 “효과가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일반 스킨케어의 이미지는 “편안하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킨케어 서비스를 유형별 특성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보다 소비자에게 효율적인 스킨케어 시스템을 제시하고 스킨케어의 문제점 및 개선점을 파악해 보완함으로써 피부미용산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스킨케어 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목적	4
3 연구의 가설	5
II 이론적 배경	6
1) 피부의 구조	6
2) 피부의 생리적 기능	10
3) 피부관리의 정의	12
4) 피부관리의 목적	13
5) 우리나라의 피부미용 변천사	14
2.일반 스킨케어	15
1) 일반 스킨케어의 개념 및 역사	15
2) 일반 스킨케어의 실용성	16
3) 스킨케어의 현황 및 향후전망	21
3.메디컬 스킨케어	23
1) 메디컬 스킨케어의 개념	23
2) 메디컬 스킨케어의 실용성	24
3) 메디컬 스킨케어의 현황	33
4.자가관리	36

1) 자가관리의 개념	36
III 연구방법	37
1 조사대상 및 기간	37
2 조사내용 및 방법	37
3 자료분석	37
IV 연구결과	39
1.일반적 특성 및 피부관리 형태	39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9
2) 피부관리 형태	42
3) 피부관리 인식도	44
2.메디컬 스킨케어(Medical Skin-care)	47
1) 연령대별 이용행태 비교	47
2) 직업별 이용행태 비교	49
3) 소득별 이용행태 비교	53
4) 메디컬 스킨케어 만족도	56
3.일반 스킨케어(General Skin-care)	58
1) 연령대별 이용행태 비교	58
2) 직업별 이용행태 비교	60
3) 소득별 이용행태 비교	63
4) 일반 스킨케어 이용 만족도	66
4.자가 피부관리(Self Skin-care)	68
1) 연령대별 이용행태 비교	68

2) 직업별 이용행태 비교	70
3) 소득별 이용행태 비교	73
4) 자가 피부관리자의 만족도	76
5.스킨케어 유형에 따른 선호도 조사	79
1) 메디컬 스킨케어	79
2) 일반 스킨케어	81
 V 결론 및 제언	 83

참 고 문 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 1.레이저 요법의 종류	29
표 2.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41
표 3.연령대에 따른 피부관리 행태 비교	43
표 4.연령대에 따른 피부관리 인식도 비교	45
표 4.연령대에 따른 피부관리 인식도 비교	46
표 5.연령대에 따른 메디컬 스킨케어 이용행태	48
표 6.직업에 따른 메디컬 스킨케어 이용행태	51
표 6.직업에 따른 메디컬 스킨케어 이용행태	52
표 7.소득에 따른 메디컬 스킨케어 이용행태	54
표 7.소득에 따른 메디컬 스킨케어 이용행태	55
표 8.연령대에 따른 메디컬 스킨케어 만족도	57
표 9.연령대에 따른 일반 스킨케어 행태	59
표 10.직업에 따른 일반 스킨케어 행태	61
표 10.직업에 따른 일반 스킨케어 행태	62
표 11.소득에 따른 일반 스킨케어 행태	64
표 11.소득에 따른 일반 스킨케어 행태	65
표 12.연령대에 따른 일반 스킨케어 만족도	67

표 13.연령대에 따른 자가 피부관리 행태	69
표 14.직업에 따른 자가 피부관리 행태	71
표 14.직업에 따른 자가 피부관리 행태	72
표 15.소득에 따른 자가 피부관리 행태	74
표 15.소득에 따른 자가 피부관리 행태	75
표 16.자가 피부관리자의 연령대별 메디컬 스킨케어 선호도	80
표 17.자가 피부관리자의 연령대별 일반 스킨케어 선호도	82

그 립 목 차

그림 1. 연령대별 자가 피부관리 만족도	76
그림 2. 직업별 자가 피부관리 만족도	77
그림 3. 소득별 자가 피부관리 만족도	78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사회의 경제발전은 생활수준과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와 함께 경제적 풍요와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평균수명은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동시에 건강한 삶을 방해하는 환경오염과 성인병 등 삶의 질을 저해하는 요소들도 또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기본적인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고 균형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가 웰빙(Wellbeing) 혹은 웰니스(Wellness) 트렌드로 나타나고 있다(2007, 김경희).

현대사회에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바로 외모지상주의로 ‘좋은 신체적 외모가 곧 행복과 성공’이라는 신체에 대한 문화적 이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취업 면접 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2008, 손현진).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가 급 변화하면서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발전하고 있다 가장 먼저 표면적으로 보이는 외모가 대인관계 및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외모를 가꾸는 일은 더 이상 인간 본연의 생활을 넘어서 필수적인 관리가 되어가고 있는 셈이다 이렇듯 외모는 자신을 표현하고 표출해내는데 필요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

최근 두드러진 여성의 사회참여율이 높아지면서 일차적인 의·식·주 문제로부터 벗어나 삶의 질과 여가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현대의 급변하는“미”의 관점들은 인간의 도덕적 윤리규범과 가치관에 커다란 변화

를 주어 현대인의 외모에 관한 미의 기준을 다양하게 변화 시켰다. 특히 피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깨끗한 피부가 미의 일차적 기준이 되었다(2006, 김숙은). 외모지상주의와 상업주의로 인해 여성들에게 내면의 아름다움보다는 외적인 아름다움만을 중시, 강요하는 사회적 영향으로 왜곡된 미를 선호함으로써 본인이 가진 본연의 신체의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얼굴에 있는 결점을 감추고 남에게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기 위하여 외모의 중요성을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외모는 자신을 표현해 내는 척도로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가지며, 젊음과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하여 누구나가 화장품을 손쉽게 접하고 사용하는 것에서부터 피부관리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피부관리의 경우 여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며 이에 따라 피부관리실의 형태도 범위가 넓어져 많은 영역에서 발전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얼굴만을 관리하던 초창기의 피부관리실 형태에서 벗어나 현재는 그 형태가 매우 세분화 되었으며 여러 가지 대체 요법이 접목되어 고유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전문관리실도 늘어나고 있다. 현재 피부관리 시장은 산업의 발달과 자연스럽고 건강한 미를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성향으로 인해 크게 발전하고 좀 더 넓은 영역을 키워가고 있다.

또한 여성들의 피부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시대적으로 변화한다. 이러한 욕구와 기호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기술적인 발전과 더불어 고객의 필요조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킨케어 서비스를 유형별 특성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보다 소비자에게 효율적인 스킨케어 시스템을 제시하고 스킨케어의 문제점

및 개선점을 파악해 보완함으로서 피부미용산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스킨케어 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20~50대 여성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스킨케어와 메디컬 스킨케어, 자가 관리에 관한 선호도와 만족도 조사를 통해 스킨케어 서비스 시스템을 분석함으로써 보다 소비자에게 효율적인 스킨케어 이용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각 피부미용 산업이 앞으로 나아 갈 방향과 스킨케어 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점을 파악해 보완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부관리 행태를 파악한다 .

연구문제 2) 메디컬 스킨케어의 이용행태 및 만족도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3) 일반 스킨케어의 이용행태 및 만족도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4) 자가 관리의 이용행태 및 만족도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5) 스킨케어 유형에 따른 선호도를 알아본다.

3. 연구의 가설

본 연구에 대한 구체적 가설은 다음과 같다.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부관리 행태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 메디컬 스킨케어의 이용행태 및 만족도는 연령, 직업,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 3) 일반 스킨케어의 이용행태 및 만족도는 연령, 직업,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 4) 자가 관리의 이용행태 및 만족도는 연령, 직업,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 5) 스킨케어 유형에 따른 선호도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피부의 구조

피부는 신체의 외부를 덮고 있는 하나의 막으로서 여러 외부 환경요소로부터 신체를 보호 해주는 중요한 기관으로, 다양한 생리적 기능을 수행하여 내부장과 그 밖의 체내기관을 보호해 주고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하며 사람이 살아온 연륜과정을 말해주는 나무의 나이테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2003, 김명숙). 피부표면은 육안으로 보면 평평한 듯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확대하여 관찰해보면 복잡한 마치 그물모양의 구조로 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치 울퉁불퉁한 모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피부에 올라와 있는 부분을 소릉이라 하며, 낮은 부분을 소구라고 한다. 건강하고 젊은 피부일수록 높낮이의 차이가 크지 않아 피부결이 곱고 매끈하며 높낮이의 차이가 클수록 피부가 울퉁불퉁하고 거칠다. 즉, 소릉과 소구의 높낮이가 낮을수록 피부가 곱고 섬세한 반면, 높낮이의 차이가 클수록 거칠다 모공은 소구가 교차되는 지점에 있으며 소릉의 중심에는 한공이 있으며 이곳에서는 땀을 분비한다(2004, 김주원 외).

피부는 얇은 층인 표피(epidermis)와 표피 밑의 깊은 층인 진피(dermis)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진피의 밑에는 결합조직층인 피하조직(subcutaneous tissue)이 있다. 표피와 진피사이에는 기저막(basementmembrane)에 의해 명확히 구분되어지나 진피와 피하조직 사이에는 같은 결합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어 경계 없이 바로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구분은 불명확하지만 진피층에는 섬유다발이 많고 피하조직층에는 지방조직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2002, 이정옥).

피부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표피

표피는 상피조직(epithelialtissue)으로 구성되어 있는 피부의 가장 바깥쪽의 층을 말한다. 표피는 신체내부를 보호 해주는 보호막 기능을 함으로써 외부로부터의 유해물질과 세균, 또 자외선의 침입을 막아준다(2003, 김명숙). 표피는 전부 다섯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표피의 층은 깊은 층에서부터 기저층(basallayer), 가시층(spinouslayer), 과립층(granularlayer), 투명층(clearlayer) 및 각질층(hornylayer) 으로 되어 있다. 세포의 성분은 대부분 각화세포(keratinocyte)라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각질층을 구성하는 각질세포를 만드는 세포이다 또한 이 외에도 멜라닌 색소를 합성하는 멜라노사이트가 기저층에 존재한다(2008, 김수빈).

세포의 모양은 깊은 층으로 갈수록 높이가 높아지고 각질화 되어 있지 않다. 위쪽으로 갈수록 각질화 되어있고 납작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 표피는 깊은 층에서 계속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 내며 만들어진 세포가 위로 밀려 올라가면서 죽은 세포는 차츰 떨어져 나간다(2009, 이해원).

또한 피부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인 멜라닌형성세포가 기저세포 사이에 있어 피부 색소인 멜라닌을 만들어 내며 이 멜라닌형성세포의 기능에 따라 피부색이 정해진다. 즉, 멜라닌 형성 세포의 기능이 활발하면 짙은 색,

약하면 흰 피부가 된다. 또 햇볕을 쬐면 멜라닌 형성세포가 활성화되어 멜라닌 색소의 생산량이 많아지므로 피부가 검게 되어 자외선을 흡수하여 피부를 보호한다.

(2) 진피 (dermis)

진피는 표피보다 20~40배 정도 두터우며 두께는 2~3mm으로서 실질적인 피부이고 피부조직 외에 부속 기관인 혈관, 신경관, 림프관, 한선, 피지선, 모발과 입모근을 포함하고 있다(1998, 이정옥).

진피는 아교섬유(collagenous fibers)와 일부 탄력섬유(elastic fibers)로 구성되어 있는 결합조직(connectivetissue)으로 진피층은 질기면서도 탄력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진피의 결합조직은 매우 촘촘히 짜여져 있어 치밀 결합조직(denseconnectivetissue)이라고 분류된다.

이 결합조직은 섬유 다발로 짜여져 있어 마치 그물모양으로 보이는데 그 안에 혈관 림프관신경이 들어 있고, 피부의 부속기관으로 분류되는 털과 땀샘도 이 진피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피부영양공급과 노폐물 배설, 감각 분비등 피부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진피를 현미경으로 보면 다시 유두층(papillary layer)과 그물층(reticularlayer)의 두 층으로 나누어 진다. 진피는 결합조직들의 강인성에 의해 피부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며 탄력성과 관련이 있다. 진피조직은 우리 신체의 탄력적 균형 유지와 피부의 윤기 및 긴장도를 유지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콜라겐과 엘라스틴 섬유질 그리고 이들 섬유질 사이를 채우고 있는 당단백질로서 히아루론산, 무코다당류 이외

에도 콜라게이나나제 콜라겐 분해효소를 비롯한 여러 가지 효소들이 이 섬유 세포에 의해 형성된다(2008, 김수빈).

(3) 피하조직(subcutaneoustissue)

진피와 근육, 뼈 사이에 위치하며 지방을 함유하고 있는 피부의 가장 아래층을 피하조직이라고 한다(2008, 김수빈).

피하조직은 섬유다발로 인해 만들어진 그물사이에 지방세포가 많이 끼여 있고 촘촘히 짜여져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이렇듯 촘촘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를 잡아당겼을 때 피부와 근막사이에서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피부 밑의 지방층은 평소 실제로 피부 밑에서 몸의 단열층역할을 해 준다(2009, 이혜원). 피하지방이 지방층은 남녀, 나이나 기후, 영양상태 등에 따라서 개인차가 나타나고 몸의 부위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난다. 이 지방층의 양에 따라서 몸의 바깥모양, 즉 외관에서 시각적 차이가 나게 된다. 일반적으로 여성에 남성에 비해 고루 많이 축적되는데 여성의 곡선미를 연출하며 둔부, 하복부, 허리, 유방 등에 많다 지나친 영양섭취는 지방의 축적을 늘어나게 함으로 비대해질 수 있다. 하지만 적절한 지방층은 피부의 단열작용, 몸을 보호해주며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대한 완충작용과 영양을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2008, 임수진).

2) 피부의 생리적 기능

피부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하며 신체의 항상성을 깨뜨리는 외적 요인으로부터 막아준다. 또한 바깥쪽에 위치하는 가장 상처받기 쉬운 기관계이며 박테리아, 상처, 해로운 화학물질 등에 노출되어 있다. 피부는 내부 장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를 덮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외피로서의 많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다. 피부는 자외선, 온도의 변화, 습기, 먼지, 대기오염 등의 외부 환경의 변화에 끊임 없이 접촉하고 있으며 이 접촉과정 중 생존에 필수적인 정보를 빠른 시간에 관독하고 신체로 하여금 적절히 반응케 하여 개체를 보호하는 중요 임무를 맡고 있다(2009, 최성임).

피부의 생리적 기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보호 작용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힘이나 자외선, 온도변화로 부터 내부를 보호하고, 화학물질이나 미생물의 침입을 방지한다 또한 체표에서의 수분증발을 방지 하고 항균 작용을 발휘하는 지질을 분비한다(2010, 천병수 외).

(2) 체온조절 작용

모세혈관의 확장, 수축에 의해 체온을 조절한다(2007, 이해영 외).

(3) 분비 배설 작용

피부 표면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수분이 끊임 없이 증발 하는데 성인에 있어서 그 양은 800ml/1일 정도가 된다 또한 체온이 상승하면서 땀을 배출하게 되고 피지선에서 피지를 분비하고, 각질층의 탈피작용을 통해 체내 물질을 밖으로 배출하는 작용을 한다(2010, 천병수 외).

(4) 지각 작용

촉각, 통각, 온각, 냉각을 감지하는 지각신경이 있다 가려움증은 통각의 일종이며 간지러움을 촉각의 일종이다(2007, 이혜영 외).

(5) 호흡작용

피부조직을 통해 소량의 산소를 흡수하고 탄산가스를 배출하는 가스호흡 작용을 하는데 그 양은 폐 호흡량의 약 1%정도이다(2008, 김수빈).

(6) 흡수작용

모낭, 피지선 및 표피경로에서 각종 물질의 흡수작용을 하는데 특히, 지용성 물질이나 유기용매에 잘 녹는 물질은 피부가 잘 흡수 한다(1998, 이정옥).

(7) 비타민 D의 합성 작용

자외선을 흡수하여 비타민D를 합성하고 신체를 보호하는 멜라닌 색소를 형성한다(2009, 정명아).

(8) 항체생성작용

세망내피계 및 표피세포에서 BCG(BacillusCalmette-Gurin), 종두 접종에 의해 면역항체를 생성하여 체내 보호 작용을 한다(2008, 김수빈).

3) 피부관리의 정의

피부관리를 지칭하는 말은 에스테틱(esthetic) 또는 코스메틱(cosemetik)이라고 하며 피부미용은 두발을 제외한 얼굴과 신체피부의 모든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시켜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며 얼굴과 신체 미용상의 문제점들을 학문적 이론을 바탕으로 핸드테크닉 및 피부미용기기를 사용하여 피부를 아름답게 미화시키는 전신 미용술을 의미한다(2003, 김명숙). 또한 피부미용은 인체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 증진 시키는 과정이며 피부와 근육에 피부미용기술을 행하는 것으로 학문적 이론을 바탕으로 수작업과 피부미용기기를 이용하여 인체를 아름답게 하는 전신 미용술이다.

피부미용을 의미하는 에스테틱은 약 200년 전 독일의 학자 바움 갈덴 Baumgarten, (1714~1762)이 ‘미는 인간에게 만족감과 쾌감을 주는 대상이며 보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다.’ 라는 감성의 미학 차원에서 처음 사용하였으며 피부미용의 뜻 은 미학(美學), 심미(審美), 미의식(美意識)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2008, 임수진). 이와 같이 피부미용이란 안면 및 전신의 피부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방법을 이용 하여 피부의 생리기능을 자극함으로써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시키는 미용 기술이다. 피부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

한 생리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이것은 연령, 계절, 환경, 생활 등에 의하여 변화되어 가고 있다(1990, 이정옥). 이러한 조건들로 의하여 노화를 들어내는 주름, 피부 처짐, 색소침착, 건조증 등 과 같은 미용상의 문제를 예방하고 관리해 주는 것 을 피부관리라고 할 수 있다.

4) 피부관리의 목적

피부관리는 내적인 관리와 외적인 관리로 구분할 수 있다.

내적인 관리란 적절한 영양을 섭취함으로써 신체 조직 내 에 영양을 공급, 산소공급을 원활히 하고 운동 등을 통해 노폐물과 독소제거를 해줌으로서 노화를 지연하는 것을 의미한다.

외적인 관리란 철저한 세안, 필링, 마사지 등 정기적인 관리를 말하며 자신의 피부에 맞는 기초제품의 선택, 노화주름방지를 위한 고 기능성 화장품의 사용과 자외선으로 인한 노화방지를 위해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습관 등을 의미한다. 또한 피부관리는 전문관리실에서 행해지는 전문관리(shopcare)와 가정에서 행하는 개인관리(homecare)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피부의 건강상태유지와 흉한피부상태의 방지와 개선 그리고 조기노화의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2010, 박현정).

이와 같이 피부관리란 피부를 자극하여 피부가 지닌 피부본연의 기능을 유지시켜 주어 젊고 아름다운 피부로 가꾸어 주는 미적 기능과 함께 그 범위가 확대되어 건강상태까지 체크할 수 있는 산업영역으로 까지 발전 하고 있으며 기술, 과학, 감성, 서비스 등이 총체적으로 유기성을 가지고 영역을 넓혀가는 중

합적 예술로 까지 그 의미가 확대되고 있다. 즉, 피부가 지닌 모든 기능을 가능한 완전히 유지시켜 미용 상의 문제점 등을 방지하고, 젊고 아름다우며 깨끗한 피부를 가꾸게 해준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나아가 피부 관리를 보다 아름답게 살아가고 싶어 하는 바람을 가진 고객이 확실하게 의식하고 있거나 혹시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마음 어딘가에 갖고 있는 기대와 불만을 점검해서 그것에 부응할 수 있도록 미적 가치와 기능적 가치를 함께 지닌 형을 창조, 제안해서 실제로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2007, 홍진이).

5) 우리나라 피부미용의 변천사

우리나라의 경우 피부미용을 주된 업무로 다루고 있는 피부미용사는 헤어를 위주로 하는 미용사자격증에 업무내역을 포함하여 국가자격을 부여해왔지만 2008년도 하반기부터 보건복지가족부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미용사 일반과 미용사 피부로 분리되어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2010, 정보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내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미용사 자격을 취득한자는 미용사일반과 미용사피부로 업무 범위를 구분하고 미용사면허를 받은 자가 사용할 수 있는 미용기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내용만을 사용할 수 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미용사 피부의 직무범위는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분석, 피부 관리, 제모, 눈썹 손질 등을 지정 한다. 신체의 범위는 얼굴, 목, 어깨 등 복부, 팔, 손, 다리, 발이며 피부 미용은 미용의 목적으로 피부연조직의 표면층을 가볍게 마찰

하는 것 이라 고 정의한다(2009, 보건복지가족부).

2. 일반 스킨케어

1) 일반 스킨케어의 개념 및 역사

세계적인 추세로 여성의 사회활동과 경제에 대한 참여의 확대는 따라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미용분야도 함께 세분화 되었다. 1946년에는 국제피부미용 기구인 시데스코(CIDESCO)가 만들어 졌으며 피부미용분야가 전문직종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 스킨케어의 도입은 1971년 최운학씨가 일본에서 피부관리를 배워와 명동에 국내 최초의 미가람 피부관리실을 오픈하여 피부관리에 있어 하나의 획을 긋게 되는데 주로 여드름 관리에 치중을 하였다. 이후 피부 관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정부에서 여성 교육의 일환으로 1981년 서울 구로구 독산동 서울 YMCA 근로 여성회관 여성 직업 개발부에서 피부미용업을 새로운 여성 전문직종으로 국내에 도입하여 약 7개월 간의 교육을 실시해 피부관리사를 배출하게 된다(2003, 제갈명).

피부관리실은 얼굴관리 위주에 화장품을 바르고 흡수시키는 관리 위주였으나 2000년대 이후의 피부관리실은 다양한 테크닉과 전신을 토달 관리하는 형태가 주를 이루어 세분화, 전문화, 대중화, 고급화가 강조 되고 있다. 그 예로 바쁜 현대인의 취향에 맞는 대중적인 관리실의 형태에서부터 아로마, 발관리 전용, 남성피부전용 등으로 세분화 되고 전문성을 강조한 관리실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관리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화장품과 다양한

테크닉을 선보이며 점차 시장을 확대 해 나가고 있다.

2) 일반 스킨케어의 실용성

피부관리는 일반적으로 미용에 있어서 피부가 지닌 모든 기능을 가능한 한 건강하게 유지시키며, 미용 상의 문제점들을 방지하고 젊고 깨끗한 아름다운 피부로 가꾸게 해준다는 기능적 의미로 사용된다. 피부관리실에서 시술하는 서비스 종목은 피부관리 상담, 얼굴 피부관리, 전신 피부관리, 피부타입이나 고민에 따른 화장품 선정, 매니큐어(manicure), 페디큐어(pedicure), 발관리, 두피손질, 눈썹다듬기, 탈모, 화장, 눈썹염색 등이 해당 한다(2005, 이윤수).

또한 피부관리 시 적외선기기, 자외선기기, 고주파기기, 갈바닉(galvanic)전류기, 패러딕(paradic)전류기, 석션(suction), 리프팅(lifting)기 등의 피부미용 기기를 이용한 다양한 시술을 통하여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피부관리는 젊음을 유지하고, 문제성피부를 해결하기 위한 고객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머리 미용만큼 폭넓은 고객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소득수준의 증대로 인하여 점차 보편화되어 가는 추세이다(2008, 김수빈).

일반 스킨케어에서 사용하는 마사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스웨디쉬 마사지 (Swedish Massage)

스웨덴의 의사인 Pehr Ling이 19세기 초 자신의 류마티스 치료를 위해 체

조와 생리학을 기본으로 하여 중국 이집트 유럽 등에서 전해져 내려오던 마사지의 기법들을 의사의 시각과 관점에서 정시하고 체계화한 것이다. 부드럽게 진행되며 심장을 향해 혈액이 쉽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말초에서 중추로 부드럽게 마사지 하는 것이 원칙이다. 피부미용분야에서 보편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근육계를 근거로 한다. 피부에 적절한 화장품을 바르고 손으로 피부표면을 쓰다듬듯이 문지르며 마찰하고 두드리는 등 다양한 수기법을 가하여 피부 내부의 근육계, 신경계, 순환계 까지 영향을 미치는 마사지로서 피부에 탄력성 부여, 긴장완화, 혈액순환, 근육강화, 신경이완 등의 다양한 효과를 갖는다(2008, 손현진).

(2) 경락마사지(Meridian)

경락마사지는 한의학의 기본이론중의 하나인 ‘경락학설’과 서양의 학의 수(手)기술인 ‘마사지 개념’이 결합된 것으로 경락의 체표 반사점인 경혈부위를 마사지함으로써 인체의 에너지 흐름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경락선이나 경혈점에 손가락, 손, 팔꿈치, 발, 무릎 등의 신체부위를 이용하여 가압하고 문질러서 경락을 자극함으로써 기혈의 순환을 촉진시켜 인체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건조하고 노화되고 탄력이 없는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여 건강하고 균형 있는 용모를 유지하게 한다.

또한 인체에 기와 에너지를 부여하는 마사지로 각종 질병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질병에 대한 방어능력을 키워 인체의 저항력을 증가 시키고 정신을 맑게 해준다(2007, 이정란).

(3) 림프드레나주(Lymphdrainage)

림프계는 혈관계와 유사하며 혈관계 중 정맥계에 해당되는 부속순환계 이다. 림프드레나주는 림프계에 근거를 두며 림프관과 림프절 부위를 일정한 속도와 압 리듬으로 마사지하여 정체되어 있는 조직액과 림프가 원활히 순환 배출되도록 도와주는 마사지방법으로 림프순환이 촉진되어 조직액의 배수가 촉진되고 림프계의 식균 작용, 면역작용 등이 강화되어 인체의 저항력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준다. 림프마사지는 여드름, 습진, 부종, 모세혈관 확장증 등 문제성 피부증상 관리에 효과적으로 적용되며 또한 지방세포 내에 축적물을 배설시키는데 영향을 주어 셀룰라이트(cellulite) 관리에도 효과적으로 사용 된다 (2005, 홍연숙).

(4) 아로마테라피(Aromatherapy)

아로마는 좋은 향기, 즉 이로운 향을 말하며 아로마 요법이란 정신적, 신체적, 감정적, 영적차원에서 치유 및 개선효과를 가져오는 전인 치료적 요법 즉 '허브건강에 도움이 되는 향이 나는 식물에서 추출한 휘발성 에센셜오일로 심신을 건강하게 하는 요법이다. 에센셜 오일을 이용해 마사지사 피부를 통과한 향유성분은 장기에 영향을 주고 휘발되는 향은 후각신경을 통해 감정 상태에 영향을 미쳐 육체적, 정신적 효과를 나타낸다. 아로마테라피는 몸의 면역체계를 보호해주고 마음의 생기를 돋우거나 안정시킴으로 정신적인 동시에 실제적인 치료법이다. 아로마 오일을 이용한 마사지는 다른 마사지보다 좀 더 효과적으로 몸과 마음의 긴장을 완화 시키거나 자극한다. 아로마 오일은 표피층을 통과하여 진피층의 모세혈관과 임파선을 통과한 후 몸 전체로 퍼지는데 이렇

게 몸에 흡수되는데 약 20분 정도가 소요 된다(2004, 정향진).

(5) 타이왓포마사지

타이마사지는 고대로부터 천년이 넘게 지속하여 발전되어 왔으며 건강과 질병치료를 위해서 인간 내부 에너지의 흐름과 균형에 중점을 두고 있다. 타이 전통마사지는 인도요가의 영향이 크지만 인체 에너지가 흐르는 통로를 다룬다는 점에서 중국의 마사지인 추나와 비슷하다 타이마사지는 유연성을 좋게 하고 몸 양쪽의 근육을 똑같이 균형 있게 맞추어 준다. 또한 상대방과 서로 타이마사지를 주고받으면서 두 사람은 작지만 강한에너지를 주고받게 되며 삶의 활력과 에너지를 서로 공유하여 균형을 이뤄 삶의 조화와 리듬을 갖게 된다. 자세를 좋게 하고 유연성을 늘리고 통증을 완화하는 타이마사지는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서 오는 문제들을 치료한다. 신체적 스트레스에서 오는 근육의 뻣뻣함, 몸의약화, 통증으로부터의 운동감각저하와 정신적인 스트레스에서 오는 두통, 소화불량, 피부문제 등 으로 이어지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준다 (2003, 황영옥 외).

(6) 발마사지(Foot reflexology)

발마사지는 훑어주기, 돌리기, 당기기, 누르기, 진동 및 흔들이, 밀기, 문지르기, 쳐주기, 비틀기 등 의 기본기법을 적당히 조합하여 엄지손가락과 손으로 발 , 발목, 다리 등 의 반사부위를 자극하는 것이다. 20세기 초 이비인후과 의사인 W Fitzgerald 가 뇌에서 척수를 거쳐 내려온 많은 신경들이 자극에 의하여 반사운동을 일으키고 손과 발에 모여 있는 말초신경에서 반응하는 반사구

이론을 제시하였다. 반사구 자극이 구심신경을 따라 척수후각으로 들어가고 이 자극은 대뇌로 전달되며 척수에 있는 교양질은 대뇌로 전달되는 구심성정보의 조절효과를 가지고 있어 발마사지와 같은 피부자극은 대섬유를 선택적으로 활성화 시켜 통증완화, 이완의 효과도 낼 수 있다(2002, 장미영).

(7) 팔사요법

팔사요법은 피부표면의 표피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반흔 조직을 형성시켜서 지방과 한선의 기능을 개선시키며 지방분비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즉 팔사요법은 피부를 자극시켜 피부의 온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또한 피부의 근원조직이 유착증을 보이고 반흔 조직이 형성되면 마찰운동과 신장력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유착조직을 늦추고 반흔 조직을 부드럽게 하여 더 좋은 피부미용 효과를 얻을 수 있다(2008, 손현진).

(8) 신경점마사지(Nerve punkt massage)

신경점마사지는 신경배출점만 눌러 시행하는 마사지법을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쓰다듬기 동작을 하고 신경이 골격으로부터 나오는 위치에서 멈추어 신경점을 여러번 누른다. 일정한 신경점을 눌러 고객에게 편안함을 주고 신경을 진정시키고 균형을 잡아준다. 일종의 지압법 이라고 할 수 있다(2008, 손현진).

(9) 결합조직마사지(Connective tissue massage, CTM)

결합조직마사지는 1926년 물리치료사 엘리자베스 디케(Elizabeth Dicke)에 의하여 고안되어 발전된 마사지로 결합조직의 반사대가 있는 내부기관이 반사

작용 하는 마사지 기법으로 신경치료내지 자율신경과 중추신경계통을 통한 치료마사지이다. 피부와 근육사이에 있는 결합조직을 이완시키는 기법이다. 결합 조직에 긴장이 쌓였을 때 이마사지를 시술하면 수분량과 탄력성, 혈액순환에 변화가 오게 된다.

얼굴의 결합조직 마사지는 독일의 헬렌피트룰라(Helen Pietrula)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피부관리 영역에 도입, 확대, 발전됐다(2008, 손현진).

3) 스킨케어의 현황 및 향후전망

국민들의 소득향상과 빠른 해외 정보의 유입, 인식의 변화 등으로 국내의 피부관리산업은 하나의 서비스업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2009, 권혜영). 국내에 피부 관리를 병행하고 있는 곳으로는 병원, 화장품 전문점, 방문판매업자, 미용실, 체형관리실, 한방병원, 심지어 공중목욕탕에서조차 무분별하게 피부 관리실을 운영, 영업을 하고 있으며 특히 ‘홈케어’라는 이름으로 단기간에 기본 마사지 기법만을 익혀 가정방문을 통하여 피부 관리를 하는 인원 역시 수 없이 많은 실정이다. 또한 국내 일반인들의 피부관리 인식이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피부관리 교육의 확대, 전국의 미용학원에서의 교육개설이 증가할 만큼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2008, 손현진).

일본의 경우를 비추어 보면 지난 2002년 3월 7일 일본 표준 산업 분류표에 에스테틱 산업이 독립된 형태로 기재됨으로써 산업으로서의 독립된 형태를 이루며 정식지위를 획득하였다. 피부 미용업이 도입된 후 30년 동안 3조원 이상의 시장규모를 형성하며 성장 해 온 일본 피부미용의 발전을 보여준 것이다.

일본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피부관리 시장도 더 발전하고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각 언론 매체에서도 21세기 유망직종으로 피부관리사를 손꼽고 있다(2003, 제갈명).

우리 나라에서도 2008년 1월 1일부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미용사 자격증이 미용사(일반)과 미용사(피부)로 구분됨에 따라 미용사의 업무범위를 구분하였다 이는 미용업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무엇보다 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다. 이러한 세부적인 발전이 지속되는데 반하여 피부 미용사 자격 독립과 관련하여 첨예한 이해관계 구도, 법적 규정미비 등 아직 풀어야 할 문제가 많은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의 해결을 계기로 하여 올바른 피부 관리를 고객에게 제공하여 지금 현재 무분별하게 운영 및 영업을 하는 행위가 개선되어질 것으로 보여 진다.

3. 메디컬 스킨케어

1) 메디컬 스킨케어의 개념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메디컬스킨케어는 이미 서구 선진국에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고 그 분야 또한 일반 피부관리, 의료기기화장품 등의 분야까지 활발히 교류 하면서 영역을 조금씩 넓혀가고 있다.

또한 피부 및 비만관리를 전문적으로 받기를 희망하는 고객층이 증가함에 따라서 병원 내에 피부관리실 및 비만관리실을 운영하는 병원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병원의 경우 종전에는 피부 및 성형외과로 국한 되었으나 최근에는 내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다양한 진료과 에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고 있다. 병원 부설관리실의 경우 레이저 등 각종 의료기기 사용 후 피부의 변화 관찰이 용이하다 메디컬 스킨케어는 일반 병원에서 색소질환, 여드름, 혈관성 질환, 노화된 피부 등의 문제성 피부를 의료기기 또는 피부질환에 적합한 화장품 등을 이용하여 치료 및 관리 하는 것을 의미 한다(2010, 이소영). 메디컬 스킨케어를 좀 더 광범위한 범위로 개념을 잡아보면 치료적 차원에서의 의학적으로 접근한 피부관리와 비만, 체형, 두피, 피부재생, 반영구 화장 등도 포함할 수 있다. 일반적인 스킨케어와는 다르게 메디컬 스킨케어는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고 치료가 아닌 개선이나 완화의 개념에서 나아가 치료하기 위한 시술법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피부관리로 일차 진료영역에서 어떤 시술의 작용기전이나 효과를 과학적, 의학적으로 입증하여 그 근거에 입각한 시술기법을 사람의 피부의 상태와 현재의 문제점에 맞게 적용해 나가는 것 이

다(2006, 정종영 외). 글리콜릭산 필링(Glycolic acid peeling) 같은 화학필링을 포함한 다양한 필링법이 시행되면서 주름진 피부엔 탄력을 기미 같은 색소 침착 질환에서는 미백효과를, 여드름 치료에서는 막힌 모공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다양하게 쓰이고 있고, 다양한 레이저의 도입으로 여러 종류의 피부질환치료 후에 효과, 개선 및 부작용의 감소를 목적으로 메디컬스킨케어가 쓰이고 있다(2008, 김승희).

2) 메디컬 스킨케어의 실용성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이 실행되고 있는 메디컬 스킨케어의 유형을 살펴보면 여드름성 피부, 기미와 주근깨 등의 색소 침착, 노화피부, 넓은 모공 등의 개선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방법으로 피부박피술과 재생관리, 미용성형과 재생, 수술 분야에 따른 전 후 관리 까지도 적용 대상범위로 보고 있다. 병원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메디컬 스킨케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박피요법

박피(peeling)란 피부를 벗긴다는 의미로 그 깊이에 따라 얇은 박피, 중간 박피, 깊은 박피로 분류되어 진다. 매체를 사용함에 따라 종류가 나뉘는데 화학적 박피, 물리적 박피, 레이저 박피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2006, 정종영 외).

깊이에 따른 박피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2005, 최은정)

① 얇은 박피(Light peeling)

아주 낮은 농도의 TCA(trichloroacetic acid) 10~13%, 과일산(glycolic acid) 용액, 등으로 표피의 가장 윗 부분을 얇게 벗기는 방법이다.

기계적 필링에 해당되는 크리스탈 필링도 여기에 속하며 여드름 피부와 칙칙한 피부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쓰인다.

② 중간 박피 (medium depth peeling)

중간 강도의 해초 박피, 화학적 박피, 레이저 박피 등으로 진피 상부에 있는 유두층까지 벗기는 방법이다. 얼굴부위의 잡티, 칙칙한 피부개선과 피부에 탄력을 준다.

③ 깊은 박피 (depth peeling)

진피 층의 망상층까지 즉, 진피의 1/3 까지 벗기는 기술이다 주로 주름이나, 여드름 흉터 개선을 위한 박피이다

재료에 따른 박피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2010, 김현정).

① 화학적 박피(chemecal peeling)

화학박피술이란 화학약물인 TCA, Glycolic acid, Jesser's solution 등을 이용하여 박피를 하는 기술을 말한다.

② 물리적 박피 (physical peeling)

기계적 박피술 또는 미세박피술(micro-dermabrasion)이라고도 하며 시술 후 신속한 결과를 보이고 마취가 필요하지 않다.

회복시간이 빠르며 크리스탈 필링, 다이아몬드 필링 등이 이에 속한다.

③ 레이저 박피 (lazer peeling)

레이저를 이용하여 조직에 열을 가하면 피부가 기화되어 피부의 탈락을 유도하는 박피로 표피의 재생을 유도하고 진피 층을 자극해 콜라겐의 생성을 촉진함으로써 여드름 흉터나 주름 치료에 많이 이용된다.

(2) 박피의 종류

① TCA 박피(Trichloroacetic acid: TCA)

TCA는 단백질을 응고시키는 작용이 있는 아세트산의 일종으로, 표피와 진피상부를 괴사시킨다 손상을 받은 조직의 밑에 있는 모낭으로부터 표피세포가 이동되어 표피를 재생시키고, 2~3주내에 진피도 재생되어 피부에 흉터를 남기지 않는다. TCA는 농도에 따라 피부 내 침투력이 달라지며, 농도를 적절히 조절해 치료하면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2010, 이소영).

표피의 일부만 탈락시키는 방법으로 15~20% TCA는 피부탄력과 주름 방지, 잡티제거, 심하지 않은 여드름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상부 진피층 까지 깎아내는 중간 박피를 하면 콜라겐 섬유 생성을 촉진시켜 잔주름 제거 효

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고농도(40%)를 사용하면 지속적인 홍반과 비후성 반흔이 초래되기도 하므로 주의해야한다(2008, 김지영).

② 해초박피 (Sea Herbal peeling)

심해의 바다 속에서 채취된 내초식물과 사해의 미네랄, 미량원소들이 미세 암석가루들로 구성된 천연물질인 해초를 사용하여 각질 탈락을 유도한다.

해초박피의 장점은 천연필링이라 피부의 손상부분이 최소화 된다는 점과 피부를 복구시키는 약초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피부에 두루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2010, 최은정).

특히 피부에 관심이 많은 20대에서 50대에 이르기 까지 모두 적용 될 수 있다. 기미환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필링 후 오히려 악화되는 사례들을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미백을 목적으로 프로그램화된 미백 해초박피를 가장 부담 없이 선택하고 있다(2003, 김영미 외).

③ 크리스탈 박피(Crystal peeling)

미세 연마술이라 하며 크리스탈 결정의 분말을 피부에 분사시켜 흡입하여 피부를 얇게 박피하는 기기로 박피의 깊이는 기기와 피부사이 흐르는 공기의 속도, 피부두께, 분말의 크기와 양, 피부의 기기 사용빈도수 등에 의해 결정된다. 대개 2~3주 간격으로 3~5회 실시하며 자주 강하게 반복하게 되면 오히려 표피의 두께가 두꺼워지며 유두 진피층에 콜라겐 침착이 증가하는 소견이

관찰되고 있다(2008, 송미경).

④ 레이저 박피 (Laser peeling)

레이저로도 박피술이 가능하다. 레이저를 이용하여 조직에 열을 가하면 피부가 기화되어 피부의 탈락을 유도한다. 표피의 재생성을 유도하고 진피 층을 자극해 콜라겐 생성을 촉진 하므로 여드름 흉터나 주름 치료에 많이 이용 된다 선택적인 광열분해(selective photo-thermolysis)작용을 이용하여 흉터 없는 치료도 도입되었으며, 레이저 빛을 조직에 노출시켜 치료 하고자 하는 병변만 선택적으로 파괴한다.(2006, 신경미)

레이저 박피요법에 종류는 다음 < 표 1 > 과 같다.

〈표 1〉 레이저 요법의 종류

레이저 종류	파장	이용부분
CO2 Laser	10,600nm	사마귀, 점, 액취증 등등
Er Laser	2,940nm	안면박피, 필링, resurfacing, 피부재생술 (주름제거, 여드름 흉터 등 치료)
Nd-YAG Laser	532nm	얇은 색소 병변
	1,064nm	깊은 색소성병변, 문신제거, 체모 등
알렉산드라라이트 Laser	755nm	체모 전용 레이저
다이오드 Laser	800-900nm	체모 등
쿨터치 Laser	1,340nm	모공, photo Rejuvenation
클리어 터치 Laser	500nm	여드름 치료
Dye Laser	585nm	혈관성 병변 치료
V-beam Laser	595nm	얕고, 깊이 있는 혈관치료 시 사용
아라미스	1,540nm	진피내에 있는 콜라겐과 탄력 섬유에만 선택적으로 사용, 주름개선
폴라리스	915nm	레이저+고주파 열 이용하여 진피까지 열 전달하고, 콜라겐 생성을 유도, 주름개선
루비 Laser	515-	색소성 병변, 혈관성 병변, 잔주름 개선 등
	1,100nm 694nm	리쥬브 네이션에 이용 체모, 필링 등

자료 : 신경미(2006) 메디컬 에스테틱의 현황, 에스프로

⑤ 글리콜릭 산 필링(Glycolic acid peeling)

케미컬 필링(chemical peeling)을 할 때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필링제인 글리콜릭산은 여드름이나 과 색소 침착 때 매우 효과적으로 쓰이는 치료방법이

다. 잡티, 검버섯, 잔주름, 기미, 모공 확장 등의 개선에 사용된다. Glycolic acid는 친수분자로서 각질층의 케라틴 세포들의 접착력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한다. Glycolic acid의 농도를 더 높이거나 바르는 시간을 오래 두어서 필링의 깊이를 깊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얻어지는 장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농도 보다는 산도를 낮추어서 대략 15초~3분정도 바른 후 중화 시킨다 피부타입에 따라 환자에 대한 주의 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중화(neutralization)이다(2005, 한도숙).

⑥ 콤스 박피(Coomb's peeling, Jesser's solution)

콤스필링은 오랫동안 사용해온 안전한 필링이다. Max Jessner에 의해 1940년 후반에 제조되었다. 레소시놀(Resorcinol), 살리실산(salicylic acid), 젯산(lactic acid)을 각각 14그램씩 95% 농도의 에탄올에 혼합하여 100ml의 용액으로 만든 것이다. 이 용액은 각질세포 사이의 세포간교를 끊어 장벽 기능을 파괴하여 필링의 효과를 나타내는 약물이다(2005, 최은정).

⑦ IPL(Intense Pulsed Light)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IPL(Intense Pulsed Light)은 광을 이용해 피부를 젊고 깨끗이 만드는 기술로서, 미국 캘리포니아의 피부과 의사인 비터(Bitter)박사가 도입한 치료법이다. 다양한 여러 파장의 빛을 이용 하여 여러 증상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 기존 레이저와 차이점으로 아주강한 파장의 빛을 주기적

으로 방출시켜서 피부 질환을 치료하는 기계이다. 혈관성 질환에는 500nm대의 파장이 좋고, 색소성 질환에는 700nm대의 파장이 효과적이다. IPL은 515~1200nm의 다양한 파장이 나오는데 필터가 있어 낮은 파장으로 인한 표피 손상을 줄이면서 안면 홍조 뿐만 아니라 주근깨, 색소성 질환, 모공확장, 잔주름 등을 모두 시술 할 수 있다(2007, 김영미).

⑧ 큐 스위치 엔디야그 레이저(Q-switched Nd-Yag Laser)

레이저 빛이 피부에 노출되는 시간을 짧게 하여 피부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 하면서 충분한 에너지로 조사할 수 있다. 따라서 흉터 없이 피부속 깊은 진피층의 멜라닌색소를 선택적으로 파괴함으로써 악성 기미로 불리는 진피형이나 혼합형 기미, 오타양반점에 효과적이다(2006, 정은진).

⑨ 주사요법

주사기로 약물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메조 테라피와 비타민 요법이 이에 속한다.

메조테라피란 전신 약물투여에서처럼 발생할 수 있는 부담감과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원하는 국소부위에만 약물 전달을 직접적으로 해줄 수 있다. 주사바늘을 사용하여 약물을 진피 또는 피하에 직접 주사를 함으로써 물리적인 자극과 화학적인 자극을 함께 가하여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2006, 정은진).

한편 비타민 요법은 고용량의 비타민을 인체에 투여하여 여드름 개선, 아토피성 피부 완화, 셀룰라이트 개선, 피부 미용 등에 사용하며 인체 내에서 활성 산소를 제거하고 최적의 세포상태를 유지시켜 주기도 한다(2008, 김지영).

⑩ RF고주파(Radio Frequency)

RF(Radio-Frequency;고주파) 에너지를 이용하여 강력한 열을 피부 깊숙이 도달하게 하여 혈류량과 산소 유입량을 증가시키게 한다. 표피는 급속냉각을 통해 열 손상을 가하지 않으며 진피층의 온도만 순간적으로 39~45도 까지 도달하게 하면서 체지방과 셀룰라이트를 분해하고 연소하는 작용을 발생시켜 바디라인을 교정한다. 통증이나 멍이 없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주지 않으며 시술부위에 제한없이 전신관리에 용이하다(2003, 김명숙).

⑪ 초음파 지방용해술 (Ultrasonic lipolysis)

저장성 지방 용해액을 지방조직에 높은 수압으로 주입하고 다시 초음파로 지방조직을 파괴하는 시술로써 수술과 메조테라피의 중간 정도 되는 시술이다. 체중을 줄이기보다는 체형을 교정하는 시술에 가깝고 1회 시술로 복부의 경우 둘레가 1~3cm정도 감소한다. 지방흡입술과 다른 것은 전신마취가 필요 없고, 시술에 따르는 위험이 적다. 제거되는 지방양은 적지만 서서히 지방이 녹아내려 자연스러운 바디라인이 연출될 수 있다. 최근에는 초음파 대신에 레이저를 사용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임상적으로는 보다 좁

은 타깃 범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공략하게 된다(2005, 최은정).

⑫ 중·저파치료기 (Middle & Low Frequency)

전기 자극을 통해 인체 내 근육의 수축 운동을 유도하여 에너지를 소모 지방을 연소시키는 방법이다. 중, 저주파의 전기 자극은 근육을 강화하고 근섬유의 크기를 증가시켜 전반적인 근 기능을 증진시켜 근육의 운동을 촉진하고 근섬유의 근핵, 미토콘드리아의 크기, 혈류량의 증가, 체지방 감소로 나타난다. 체지방 감소의 치료원리를 살펴보면, 근육점의 양 끝에 전위차를 발생시켜 패드를 부착하고 이 전기 자극을 주는데 이때 전해질이 이동하면서 세포 내에 저장되어 있던 중성지방이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되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근육운동을 통해 에너지가 소모되므로 지방이 연소하게 된다(2007, 김영미).

3) 메디컬 스킨케어의 현황

유럽에서는 오래 전부터 피부관리가 피부 질병 치료의 보조적인 방법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었으나 국내의 경우 피부과 의사의 관심 부족으로 병원에서의 피부관리는 거의 시행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에 피부과에서 여러 종류의 미용시술을 많이 시행하면서 치료의 보조적인 방법으로 메디컬 스킨케어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2010, 이소영). 메디컬스킨케어는 1998년 처음 대한 피부과 개원의협회가 발족되면서 여러 차례의 심포지엄을 통하여 피부과 병원에서

피부미용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확산되기 시작하였으며, 1998년~2000년대 초반 메디컬스킨케어의 범위가 의약분업의 실시로 인한 미용업무 범위의 확장과 함께 미용 치료 후 처치개념으로 적용되었다. 따라서 점차 메디컬 스킨케어의 비중이 증가되었다(2007, 송미경). 2000년대 초반에서 중반에 이르면서 전문성을 강조하는 각종 시술방법, 필링장비, 레이저 및 각종장비 등을 동원하여 홍보하고 공격적 마케팅이 시작되었다. 또한 고객서비스도 확장되었다. 이 시기에는 미용 시술을 위한 공간이 진료 공간보다 더 많아지고 스킨케어의 부가가치가 인정되는 메디컬스킨케어 비중이 과중된 시기이다. 2002년도에 와서는 피부과 병원의 90% 이상이 메디컬 스킨케어를 실시하고 있어 전체 의료인과 국민들의 관심도가 커지게 되었다. 메디컬스킨케어는 하나의 유행처럼 대부분의 병원에서 메디컬 에스테틱을 병행하고 있는 추세이며, 비만은 거의 모든 병원에서 주요 클리닉으로 자리 잡고 있다(2006, 정은진).

또한 한국관광공사에서는 메디컬 스킨케어의 발전과 더불어 메디컬 스킨케어를 의료관광의 소재로 삼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는 2020년 의료관광객 100만명 유치라는 목표 아래 3단계별 전략에 의거하여 추진하고 있다(2009, 한국관광공사). 의료관광이란 첨단의료 시설과 기술을 기반으로 환자를 유치하여 치료와 함께 휴양, 레저, 문화 활동을 관광과 연계하는 성장 동력산업이다. Medical Traveler는 미국의 비싼 의료비 때문에 싼 의료비를 찾아 외국을 여행하는 경제적 동기의 의료 여행자를 의미하며 Medical Tourist는 간단한 수술 등 의료목적과 함께 이를 계기로 상당기간 휴양관광을 겸하는 의료관광객을 의미한다(2008, 유지윤). 현재 국내에 방문한 의료관광객수는 정부의 목표치 5만명을 초과한 6만201명으로 2008년 2만7천480명 대비119%가 증가 하였

고, 의료 관광수입은 총 547억 원으로 입원환자의 평균진료비는 656만원 이며 외래 환자 평균 진료비는 54만원으로 입원·외래 평균 총 진료비가 1인 평균 94만원의 의료비를 지출했고, 전체 외국인 환자 중 입원비율은 65%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2009년 우리나라 의료관광을 위해 방문한 상위국가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순 이었다(2010, 복지부). 우리나라로 의료 관광을 오는 환자들의 유형을 살펴보면 물론 질병의 치료를 위한 점도 많았지만 성형, 지방흡입술, 지방이식술, 가슴확대술 등 성형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수치도 적지 않았다(2011, 오영인).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의료 관광 국가로서는 선진국인 국가인 것에 비해 후발주자로 평가되고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통계와 같이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형을 포함한 메디컬 스킨케어의 의료관광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날 것으로 기대된다.

4. 자가관리

1) 자가관리의 개념

지금까지 피부관리는 전문 피부관리실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홈케어 제품을 이용한 자가 피부관리도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피부관리를 위한 홈케어 제품이 홈쇼핑몰에서 인기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러한 홈케어 제품은 주로 젊은 여성들이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사회활동 시 좋은 외모가 또 하나의 경제력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예이기도 하며 한국 피부미용 산업부분에서 홈케어 화장품을 이용한 화장품의 품질이나 다양성이 양적으로 확대되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피부관리를 통한 인상, 외모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화장품, 전문 피부관리 제품 등이 출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제품들의 출시는 피부관리의 개념변화와도 연관이 깊다(2009, 김금란).

또한 일반인들의 피부관리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면서 피부관리실 이용과 더불어 집에서 행하는 자가 피부관리의 영향력이 점점 확대되어가고 있으며 자가 피부관리에 사용되는 피부관리 제품 또한 점점 더 고급화 되어가고 있다.

이에 따른 피부관리의 형태도 과거에 비해 보다 전문화 되면서 세분화, 고급화, 차별화를 통한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최근의 피부관리 산업은 과거에 비해 보다 수준 높고, 체계적이며 광범위한 범위로 확대 되어 가고 있으며, 이는 스트레스 해소 및 건강과 아름다움을 유지 하고자 하는 예방의 형태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Ⅲ. 연구 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대상자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20~5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5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수거된 493부 중 성실하게 응답한 488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설문 조사기간은 2011년 1월 24일부터 3월 19일까지로 약 10주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2. 조사내용 및 방법

설문지는 일반 스킨케어, 메디컬 스킨케어, 자가관리에 관한 선행논문의 (2010, 이소영), (2007, 송미경), (2008, 손현진) 설문을 참고하여 수정, 보완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5문항, 피부관리에 대한 인식 및 태도 12문항, 스킨케어 이용 형태에 관한 사항 10문항, 자가관리에 관한 문항 13문항으로 4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통계적 자료의 분석은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version 15.0, SPSS Inc., Illinois, USA)를 사용하였다. 분석수치는 빈도(frequency)와 백분율(percentage)로 표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부관리 행태 및 인식도, 메디컬 스킨케어, 일반 스킨케어 및 자가 피부관리 행

태 비교를 위해 교차분석(Chi-square test)를 실시하였으며, 기대빈도가 5이하인 경우 Fisher's exact test를 사용하였다. 또한, 복수응답을 허용한 설문항목에 대하여 Multiple response test를 사용하여 비교·검증하였다. 모든 통계치의 유의수준은 $p < 0.05$ 수준에서 실시되었다.

IV 연구결과 및 고찰

1. 일반적 특성 및 피부관리 행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평상시 피부관리 방법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대상자 중 메디컬 스킨케어를 받는 대상자는 137명(28.1%), 일반 스킨케어를 받는 경우는 151명(30.9%), 자가 관리를 하는 경우는 200명(40.1%)로 자가 관리를 하는 대상자가 가장 많았다.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표 2), 전체 대상자의 64.1%는 20대로 가장 많았으며, 피부 관리 그룹에 따른 연령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58$). 30대 14.5%, 40대 13.2%, 50대는 7.9%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상자의 41.4%는 학생으로 가장 많았고, 메디컬 스킨케어 그룹의 21.9%는 회사원, 10.2%는 전문직으로 일반 스킨케어 그룹과 자가 관리 그룹에 비해 회사원과 전문직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p=0.000$). 전체 대상자의 73.6%인 359명이 대졸(재학 포함)의 학력을 보였으며, 자가 관리 그룹의 32.0%가 고졸로 메디컬 스킨케어와 일반 스킨케어 그룹에 비해 학력이 유의적으로 낮았다($p=0.000$). 또한, 미혼이 전체 대상자의 62.9%(307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피부 관리 그룹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p=0.490$). 월 평균 소득은 100만원 이하가 전체 대상자의 41.9%로 가장 많았으며, 자가 관리 그룹의 44.9%가 월 평균 소득이 100만원 이하로 다른 그룹에 비해 소득이 유의하게 낮았다($p=0.000$). 이는 자

가 관리의 경우 경제적 활동이 적은 학생과 주부의 비율이 다른 그룹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과 관계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메디컬케어 (n=137)	일반케어 (n=151)	자가관리 (n=200)	전체 (n=488)	p-value
연령대					
20대	98 (71.5)	88 (58.3)	127 (63.5)	313 (64.1)	0.058
30대	20 (14.6)	31 (20.5)	23 (11.5)	74 (15.2)	
40대	11 (8.0)	22 (14.6)	31 (15.5)	64 (13.1)	
50대	8 (5.8)	10 (6.6)	19 (9.5)	37 (7.6)	
직업					
학생	53 (38.7)	64 (42.4)	85 (42.5)	202 (41.4)	0.000
회사원	30 (21.9)	15 (9.9)	17 (8.5)	62 (12.7)	
자영업	9 (6.6)	12 (7.9)	9 (4.5)	30 (6.1)	
서비스업	18 (13.1)	14 (9.3)	32 (16.0)	64 (13.1)	
주부	13 (9.5)	27 (17.9)	54 (27.0)	94 (19.3)	
전문직	14 (10.2)	19 (12.6)	3 (1.5)	36 (7.4)	
학력					
고졸	11 (8.0)	18 (11.9)	64 (32.0)	93 (19.1)	0.000
대졸(재학포함)	112 (81.8)	114 (75.5)	133 (66.5)	359 (73.6)	
대학원 이상(재학포함)	14 (10.2)	19 (12.6)	3 (1.5)	36 (7.4)	
결혼여부					
미혼	92 (67.2)	88 (58.3)	127 (63.5)	307 (62.9)	0.490
기혼	41 (29.9)	59 (39.1)	65 (32.5)	165 (33.8)	
독신(이혼, 사별, 별거)	4 (2.9)	4 (2.6)	8 (4.0)	16 (3.3)	
월 평균 소득(n=482)					
100만원 이하	53 (39.3)	60 (40.3)	89 (44.9)	202 (41.9)	0.000
100~200만원	20 (14.8)	17 (11.4)	39 (19.7)	76 (15.8)	
200~300만원	28 (20.7)	19 (12.8)	26 (13.1)	73 (15.1)	
300~400만원	8 (5.9)	16 (10.7)	25 (12.6)	49 (10.2)	
400~500만원	12 (8.9)	10 (6.7)	15 (7.6)	37 (7.7)	
500만원 이상	14 (10.4)	27 (18.1)	4 (2.0)	45 (9.3)	

2) 피부관리 행태

연령에 따른 피부관리 행태 및 인식도를 비교하여 표 3에 제시하였다. 연령대에 따른 피부관리 행태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자가관리”가 20대 59.0%, 30대 42.4%, 40대 51.7%, 50대 52.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여 연령대와 상관없이 비슷한 관리 행태를 보였다. 평소 사용 화장품의 종류는 20대는 일반화장품이 48.1%로 가장 많았으며, 30대와 40대는 기능성화장품이 각 60.6%, 51.7%, 50대는 한방화장품이 47.2%로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답하여, 연령대에 따라 사용하는 화장품의 종류에 차이를 보였다($p<0.000$). 피부미용에 투자하는 월 평균 비용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20대 0.7%, 50대 11.1%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투자 금액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p<0.000$). 또한, 평소 화장품 구입처는 20대의 경우 화장품 전문점이 41.3%, 30대, 40대, 50대는 백화점이 각 39.4%, 38.3%, 33.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50대의 경우 병·의원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5.6%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p<0.000$). 화장품 구매 시 영향 요인으로는 “브랜드 이미지”와 “주변의 권유 및 사용후기”가 모든 연령대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p=0.070$). 피부미용 관련 정보 습득처는 40·50대는 TV광고, 20대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장 많이 얻는다고 답하여 연령대에 따라 정보를 습득하는 방법에 차이를 보였다($p<0.000$). 이는 신명자(2000), 김경희(2007)에서의 연구결과 중 피부미용 관련정보를 묻는 설문에서 유사한 점을 볼 수 있다. 이는 소비자 마케팅방법으로 TV광고의 영향력을 볼 수 있으며 TV광고라는 점을 주목해 볼 때 화장품 시장의 브랜드 파워는 TV광고의 비중과 비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3. 연령대에 따른 피부관리 행태 비교

	20대 (n=313)	30대 (n=74)	40대 (n=64)	50대 (n=37)	p-value
피부관리 행태					
자가 관리	184 (59.0) ¹⁾	31 (42.4)	33 (51.7)	20 (52.8)	0.123
일반 스킨 케어	75 (23.9)	29 (39.4)	22 (35.0)	9 (25.0)	
메디컬 스킨 케어	54 (17.1)	14 (18.2)	9 (13.3)	8 (22.2)	
평소 사용 화장품					
일반 화장품	151 (48.1)	1 (1.5)	2 (3.3)	5 (11.1)	0.000***
기능성 화장품	127 (40.6)	45 (60.6)	33 (51.7)	14 (38.9)	
한방 화장품	16 (5.1)	25 (33.3)	27 (41.7)	17 (47.2)	
천연 화장품	16 (5.1)	3 (4.5)	2 (3.3)	1 (2.8)	
기타	3 (1.0)	0 (0.0)	0 (0.0)	0 (0.0)	
월 평균 피부미용 투자 금액					
5만원 이하	147 (47.1)	20 (27.3)	26 (40.0)	14 (38.9)	0.000***
5~10만원	116 (36.9)	25 (33.3)	16 (25.0)	6 (16.7)	
11~20만원	42 (13.3)	18 (24.2)	11 (16.7)	7 (19.4)	
21~30만원	6 (2.0)	8 (10.6)	8 (13.3)	5 (13.9)	
30만원 이상	2 (0.7)	3 (4.5)	3 (5.0)	4 (11.1)	
평소 화장품 구입처					
백화점	78 (24.9)	29 (39.4)	25 (38.3)	13 (33.3)	0.000***
인터넷 쇼핑몰	80 (25.6)	17 (24.2)	10 (15.0)	2 (5.6)	
화장품 전문점	129 (41.3)	15 (19.7)	17 (26.7)	8 (22.2)	
방문판매	11 (3.4)	7 (9.1)	7 (11.7)	8 (22.2)	
대형마트	11 (3.4)	6 (7.6)	4 (6.7)	4 (11.1)	
병·의원	4 (1.4)	0 (0.0)	1 (1.7)	2 (5.6)	
화장품 구매 시 영향 요인 (n=550)					
브랜드 이미지	92 (26.2)	30 (34.5)	24 (33.3)	15 (37.5)	0.070
주변의 권유 및 사용 후기	171 (48.7)	32 (36.8)	21 (29.2)	9 (22.5)	
광고모델의 인지도	18 (5.1)	4 (4.6)	7 (9.7)	2 (5.0)	
판매원의 권유	30 (8.5)	11 (12.6)	9 (12.5)	7 (17.5)	
광고내용과 호기심	22 (6.3)	4 (4.6)	4 (5.6)	3 (7.5)	
가격	18 (5.1)	6 (6.9)	7 (9.7)	4 (10.0)	

¹⁾ : N(%)

P-value was measured by chi-square test

* p<0.05 ** p<0.01 *** p<0.001

3) 피부관리 인식도

연령대에 따른 피부관리 인식도를 비교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피부미용에 대한 관심 정도 역시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관심도가 유의하게 높아졌다. 자신의 피부유형에 대한 항목에서 40·50대는“건성피부”로 답한 경우가 많았으며, 20대와 30대는 자신이“건성피부” 또는 “복합성 피부”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p<0.000$). 현재의 피부상태는 모든 연령대에서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현재피부 문제점에서는 20대가“여드름, 넓은 모공”이 34.0%, 30대는 “색소침착”이 37.9%, 40대와 50대는 “주름, 탄력저하”가 각 60.0%와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나 연령대에 따라 느끼는 피부 문제점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0$). 그러나 피부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는 모든 연령대에서 “보통이다” 또는 “많다”로 응답하여 고민하는 피부 문제점을 다르더라도 그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는 연령대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연령대에 따른 자신의 피부유형에 대한 부분에서 이혜원(2009)의 연구결과 중 본인이 느끼는 피부문제에 관한 설문부분과 유사함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현재 우리나라 여성들이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는 피부타입의 가장 대표적인 예를 보여준다. 또한 자신들이 느끼는 피부문제에 대한 부분에서 김경희(2007),송미경(2007),이혜원(2009)의 연구에서도 여성들의 가장 큰 피부문제는 주름, 탄력저하의 응답이 가장 높아 유사한 양상을 보였지만 본 연구결과에서는 넓은 모공과 여드름, 색소침착의 문제도 적지 않은 비율을 볼 수 있어 연령대에 따라 피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연령대에 따른 피부관리 인식도 비교

	20대 (n=313)	30대 (n=74)	40대 (n=64)	50대 (n=37)	p-value
피부미용 관련 정보 습득처					
백화점	52 (16.7) ¹⁾	24 (33.3)	15 (25.4)	8 (22.2)	0.000***
인터넷 쇼핑몰	88 (28.0)	16 (21.2)	8 (11.9)	2 (5.6)	
신문 잡지	44 (14.0)	9 (12.1)	7 (10.2)	2 (5.6)	
TV 광고	65 (20.8)	17 (22.7)	26 (40.7)	24 (63.9)	
화장품 전문점	64 (20.5)	8 (10.6)	8 (11.9)	1 (2.8)	
피부미용 관심정도					
매우 없다	2 (0.7)	0 (0.0)	1 (1.7)	2 (5.6)	0.005**
없다	13 (4.1)	2 (3.0)	3 (5.0)	6 (13.9)	
보통이다	142 (45.4)	35 (47.0)	28 (43.3)	11 (30.6)	
많다	123 (39.2)	30 (40.9)	22 (35.0)	10 (27.8)	
매우 많다	33 (10.6)	7 (9.1)	10 (15.0)	8 (22.2)	
피부유형					
중성피부	23 (7.2)	7 (9.1)	13 (20.0)	9 (25.0)	0.000***
건성피부	63 (20.2)	20 (27.3)	23 (36.7)	11 (30.6)	
지성피부	56 (17.8)	8 (10.6)	4 (6.7)	4 (11.1)	
민감성피부	71 (22.6)	16 (21.2)	9 (13.3)	2 (5.6)	
복합성피부	71 (22.6)	18 (24.2)	11 (16.7)	7 (16.7)	
어드름피부	18 (6.2)	3 (4.5)	0 (0.0)	0 (0.0)	
모르겠음	11 (3.4)	2 (3.0)	4 (6.7)	4 (11.1)	
현재의 피부상태					
매우 좋다	6 (1.7)	2 (3.0)	2 (3.3)	1 (2.8)	0.329
좋다	63 (20.2)	25 (33.3)	23 (36.7)	11 (30.6)	
보통이다	154 (49.3)	35 (47.0)	28 (43.3)	17 (44.4)	
약간 나쁘다	75 (24.0)	12 (16.7)	10 (15.0)	7 (19.4)	
매우 나쁘다	15 (4.8)	0 (0.0)	1 (1.7)	1 (2.8)	

	20대 (n=313)	30대 (n=74)	40대 (n=64)	50대 (n=37)	p-value
현재 피부 문제점					
여드름, 넓은 모공	106 (34.0)	6 (7.6)	1 (1.7)	0 (0.0)	0.000 ***
색소침착(기미, 주근깨, 잡티)	69 (22.0)	28 (37.9)	17 (26.7)	7 (19.4)	
주름, 탄력저하	44 (14.1)	23 (31.8)	39 (60.0)	25 (66.7)	
에민, 모세혈관 확장	26 (8.2)	3 (4.5)	0 (0.0)	1 (2.8)	
수분 부족	51 (16.2)	7 (9.1)	5 (8.3)	1 (2.8)	
칙칙한 톤	17 (5.5)	7 (9.1)	2 (3.3)	3 (8.3)	
피부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매우 많다	32 (10.0)	5 (6.1)	5 (8.3)	5 (13.9)	0.124
많다	121 (38.8)	38 (51.5)	19 (30.0)	12 (33.3)	
보통이다	139 (44.3)	22 (30.3)	35 (53.3)	14 (36.1)	
약간 나쁘다	18 (5.9)	9 (12.1)	5 (8.3)	5 (13.9)	
매우 나쁘다	3 (1.0)	0 (0.0)	0 (0.0)	1 (2.8)	
피부관리 경험 유무					
받아본 적 있음	173 (55.3)	48 (65.2)	31 (48.3)	16 (44.4)	0.141
받아본 적 없음(자가관리)	140 (44.7)	26 (34.8)	33 (51.7)	21 (55.6)	

¹⁾ : N(%)

P-value was measured by chi-square test

* p<0.05 ** p<0.01 *** p<0.001

2. 메디컬 스킨케어(Medical Skin-care)

1) 연령대별 이용행태 비교

전체 대상자 526명 중 메디컬 스킨케어 경험이 있는 137명의 연령대에 따른 메디컬 스킨케어 이용경험을 비교하여 표 5에 제시하였다. 메디컬 스킨케어 관리 기간은 20대가 3개월 미만이 44.9%, 50대는 3년 이상이 37.5%로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관리 기간이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p < 0.000$). 선호하는 메디컬 스킨케어 종류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IPL이 가장 높아 연령대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위의 기술을 선호하는 이유는 모든 연령대에서 문제성 피부에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메디컬 스킨케어 관리사의 전문성 정도 역시 모든 연령대에서 “전문성이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아 연령대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신진영(2009), 이소영(2010)의 연구결과에서 문제성 피부의 개선을 위해 메디컬 스킨케어를 받는다는 응답이 41.4%로 나타나 본 연구를 뒷받침 해준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문제성 피부의 개선보다 피부문제점의 완화 및 유지, 케어를 위한 일반 스킨케어와 메디컬 스킨케어와의 인식도의 차이가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5. 연령대에 따른 메디컬 스킨케어 이용행태

	20대 (n=98)	30대 (n=20)	40대 (n=11)	50대 (n=8)	p-value	
메디컬 스킨케어를 알게된 경로						
인터넷	21 (21.4)	4 (20.0)	0 (0.0)	1 (12.5)	0.631	
지인의 권유	48 (49.0)	10 (50.0)	9 (81.8)	4 (50.0)		
신문, 잡지 광고	16 (16.3)	3 (15.0)	2 (18.2)	2 (25.0)		
TV	6 (6.1)	0 (0.0)	0 (0.0)	0 (0.0)		
기타	7 (7.1)	3 (15.0)	0 (0.0)	1 (12.5)		
메디컬 스킨케어 선호 이유						
신뢰감	32 (32.7)	8 (40.0)	2 (18.2)	3 (37.5)	0.445	
관리 프로그램의 다양성	22 (22.4)	6 (30.0)	4 (36.4)	2 (25.0)		
효능, 효과가 확실해서	30 (30.6)	5 (25.0)	3 (27.3)	0 (0.0)		
주변 지인의 권유로	14 (14.3)	1 (5.0)	2 (18.2)	3 (37.5)		
메디컬 스킨케어 관리 기간						
3개월 미만	44 (44.9)	4 (20.0)	2 (18.2)	1 (12.5)	0.000***	
3~6개월 미만	39 (39.8)	7 (35.0)	4 (36.4)	0 (0.0)		
6~12개월 미만	9 (9.2)	7 (35.0)	1 (9.1)	3 (37.5)		
1년~3년 미만	6 (6.1)	2 (10.0)	2 (18.2)	1 (12.5)		
3년 이상	0 (0.0)	0 (0.0)	2 (18.2)	3 (37.5)		
선호하는 메디컬 스킨케어 종류						
해초박피	4 (2.5)	0 (0.0)	1 (5.6)	1 (9.1)	0.088	
호박 필링	12 (7.4)	1 (2.8)	2 (11.1)	2 (18.2)		
TCA 필링	13 (8.0)	0 (0.0)	0 (0.0)	1 (9.1)		
쿰스 필링	1 (0.6)	1 (2.8)	1 (5.6)	0 (0.0)		
글리콜릭산 필링	3 (1.9)	0 (0.0)	0 (0.0)	1 (9.1)		
크리스탈 필링	4 (2.5)	3 (8.3)	2 (11.1)	0 (0.0)		
다이아몬드 필링	9 (5.6)	3 (8.3)	1 (5.6)	1 (9.1)		
IPL	42 (25.9)	13 (36.1)	5 (27.8)	2 (18.2)		
RF 고주파	11 (6.8)	2 (5.6)	1 (5.6)	1 (9.1)		
Vitaliont	19 (11.7)	3 (8.3)	1 (5.6)	0 (0.0)		
여드름 치료	31 (19.1)	2 (5.6)	0 (0.0)	0 (0.0)		
레이저 필링	13 (8.0)	8 (22.2)	4 (22.2)	2 (18.2)		
시술을 선호하는 이유						
문제성 피부에 효과가 탁월하다	51 (49.5)	15 (62.5)	9 (81.8)	7 (70.0)		0.624
보습관리에 좋고 안전·간편하다	25 (24.3)	4 (16.7)	2 (18.2)	2 (20.0)		
가격대비 만족한다	6 (5.8)	1 (4.2)	0 (0.0)	1 (10.0)		
신뢰할 수 있다	19 (18.4)	4 (16.7)	0 (0.0)	0 (0.0)		
기타	2 (1.9)	0 (0.0)	0 (0.0)	0 (0.0)		

¹⁾ : N(%)

P-value was measured by chi-square test

* p<0.05 ** p<0.01 *** p<0.001

2) 직업별 이용행태 비교

직업에 따른 메디컬 스킨케어 이용 경험을 비교하여 학생, 회사원, 자영업, 서비스업, 주부, 전문직의 순으로 제시하였다(표 6). 메디컬 스킨케어를 알게 된 경로는 모든 직업에서 “지인의 권유”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메디컬 스킨케어의 선호 이유로는 모든 직업에서 “신뢰감”과 “관리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높은 응답률을 보여 직업별 차이는 없었다. 메디컬 스킨케어 관리 기간을 비교하여 보면, 전문직의 21.4%가 3년 이상을 받은 반면 학생과 서비스업의 50.0%가량이 3개월 미만으로 응답하여 직업에 따른 메디컬 스킨케어 관리 기간에 차이를 보였다($p < 0.000$). 선호하는 메디컬 스킨케어의 종류에서는 학생의 34.2%가 “여드름 치료”라고 답하여 현재의 피부 문제점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으며, 다른 직업에서는 “IPL”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다($p < 0.000$). 이는 정은진(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직업별 선호하는 메디컬 스킨케어의 종류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위의 기술을 선호하는 이유는 모든 직업에서 “문제성 피부에 효과가 탁월하다”라고 응답하였다. 메디컬 스킨케어의 기대효과에서 전문직의 14.3%가 “효과가 없다”라고 응답하여 타 직업에 비해 기대효과가 유의하게 낮았다($p < 0.05$). 메디컬 스킨케어 관리사들의 전문성 정도와 메디컬 스킨케어 시 이미지는 직업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메디컬 스킨케어의 재이용 여부는 직업별 대상자의 70% 이상이 다시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였으며, 재이용 이유로는 “효과가 탁월하다”와 “신뢰할 수 있다”가 모든 직업에서 높은 응답율을 나타내었다. 이는 이소영(2010)에서의 연구결과에서 메디컬 스킨케어 재이용 이유로 신뢰감의 응답이 가장 높아 본 연

구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메디컬 스킨케어가 피부관리를 단순히 케어만을 하는 관리가 아니라 일반 스킨케어보다 좀 더 많은 피부문제점의 개선을 기대하고, 치료적인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직업에 따른 메디컬 스킨케어 이용행태

	학생(n=53)	회사원(n=30)	자영업(n=9)
메디컬 스킨케어 선호 이유			
신뢰감	18 (34.0)	10 (33.3)	2 (22.2)
관리 프로그램의 다양성	13 (24.5)	4 (13.3)	2 (22.2)
효능, 효과가 확실해서	14 (26.4)	12 (40.0)	2 (22.2)
주변 지인의 권유로	8 (15.1)	4 (13.3)	3 (33.3)
메디컬 스킨케어 관리 기간			
3개월 미만	27 (50.9)	8 (26.7)	2 (22.2)
3~6개월 미만	15 (28.3)	16 (53.3)	3 (33.3)
6~12개월 미만	7 (13.2)	3 (10.0)	4 (44.4)
1년~3년 미만	4 (7.5)	3 (10.0)	0 (0.0)
3년 이상	0 (0.0)	0 (0.0)	0 (0.0)
선호하는 메디컬 스킨케어 종류			
해초박피	3 (3.9)	1 (1.6)	0 (0.0)
호박 필링	6 (7.9)	2 (3.2)	1 (5.9)
TCA 필링	7 (9.2)	2 (3.2)	0 (0.0)
쿰스 필링	1 (1.3)	1 (1.6)	0 (0.0)
글리콜릭산 필링	3 (3.9)	0 (0.0)	1 (5.9)
크리스탈 필링	1 (1.3)	1 (1.6)	2 (11.8)
다이아몬드 필링	3 (3.9)	2 (3.2)	2 (11.8)
IPL	15 (19.7)	23 (37.1)	7 (41.2)
RF 고주파	2 (2.6)	7 (11.3)	0 (0.0)
Vitaliont	4 (5.3)	13 (21.0)	1 (5.9)
여드름 치료	26 (34.2)	3 (4.8)	0 (0.0)
레이저 필링	5 (6.6)	7 (11.3)	3 (17.6)

	서비스업(n=18)	주부(n=13)	전문직(n=14)	p-value
메디컬 스킨케어 선호 이유				
신뢰감	6 (33.3)	6 (46.2)	3 (21.4)	0.498
관리 프로그램의 다양성	4 (22.2)	5 (38.5)	6 (42.9)	
효능, 효과가 확실해서	6 (33.3)	2 (15.4)	2 (14.3)	
주변 지인의 권유로	2 (11.1)	0 (0.0)	3 (21.4)	
메디컬 스킨케어 관리 기간				
3개월 미만	9 (50.0)	3 (23.1)	2 (14.3)	0.000***
3~6개월 미만	8 (44.4)	2 (15.4)	6 (42.9)	
6~12개월 미만	1 (5.6)	2 (15.4)	3 (21.4)	
1년~3년 미만	0 (0.0)	4 (30.8)	0 (0.0)	
3년 이상	0 (0.0)	2 (15.4)	3 (21.4)	
선호하는 메디컬 스킨케어 종류				
해초박피	0 (0.0)	1 (5.0)	1 (4.3)	0.000***
호박 필링	4 (13.8)	3 (15.0)	1 (4.3)	
TCA 필링	4 (13.8)	0 (0.0)	1 (4.3)	
쿰스 필링	0 (0.0)	1 (5.0)	0 (0.0)	
글리콜릭산 필링	0 (0.0)	0 (0.0)	0 (0.0)	
크리스탈 필링	2 (6.9)	0 (0.0)	3 (13.0)	
다이아몬드 필링	1 (3.4)	1 (5.0)	5 (21.7)	
IPL	7 (24.1)	4 (20.0)	6 (26.1)	
RF 고주파	2 (6.9)	4 (20.0)	0 (0.0)	
Vitaliont	2 (6.9)	1 (5.0)	2 (8.7)	
여드름 치료	2 (6.9)	2 (10.0)	0 (0.0)	
레이저 필링	5 (17.2)	3 (15.0)	4 (17.4)	

¹⁾ : N(%)

P-value was measured by chi-square test

* p<0.05 ** p<0.01 *** p<0.001

3) 소득별 이용행태 비교

월 평균 소득에 따른 메디컬 스킨케어 이용경험을 비교한 결과를 표 7에 나타내었다. 관리기간의 경우 월 평균 500만원 이상인 대상자가 다른 소득군에 비해 유의하게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p < 0.000$). 선호하는 메디컬 스킨케어의 종류로는 기타 소득군이 IPL 선호도가 가장 높은 반면, 월 평균 소득 500만원 이상군은 레이저 필링에 대한 선호도가 유의하게 높았다($p < 0.000$).

이는 송미경(2007), 김영미(2007)의 연구결과에서 월 소득과 관계없이 선호하는 메디컬 시술의 종류가 IPL과 넓은 모공의 개선을 위한 시술(MTS, 필링) 또한 많은 선호도가 있음을 볼 수 있어 본 연구결과와 약간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이는 메디컬 스킨케어의 많은 종류 중에서 연령과 피부상태, 계절 등과 같은 여러 요인에 따라서 선호하는 메디컬 스킨케어 종류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소득에 따른 메디컬 스킨케어 이용행태

n=135	100만원 이하 (n=53)	100~200만원 (n=20)	200~300만원 (n=28)
메디컬 스킨케어 선호 이유			
신뢰감	15 (28.3)	9 (45.0)	10 (35.7)
관리 프로그램의 다양성	16 (30.2)	2 (10.0)	2 (7.1)
효능, 효과가 확실해서	12 (22.6)	8 (40.0)	11 (39.3)
주변 지인의 권유로	10 (18.9)	1 (5.0)	5 (17.9)
메디컬 스킨케어 관리 기간			
3개월 미만	26 (49.1)	8 (40.0)	10 (35.7)
3~6개월 미만	19 (35.8)	8 (40.0)	14 (50.0)
6~12개월 미만	5 (9.4)	4 (20.0)	2 (7.1)
1년~3년 미만	3 (5.7)	0 (0.0)	2 (7.1)
3년 이상	0 (0.0)	0 (0.0)	0 (0.0)
선호하는 메디컬 스킨케어 종류(n=227)			
해초박피	3 (3.8)	0 (0.0)	1 (1.7)
호박 필링	8 (10.0)	3 (9.1)	1 (1.7)
TCA 필링	9 (11.3)	2 (6.1)	1 (1.7)
쿵스 필링	0 (0.0)	1 (3.0)	0 (0.0)
글리콜릭산 필링	2 (2.5)	0 (0.0)	1 (1.7)
크리스탈 필링	3 (3.8)	0 (0.0)	1 (1.7)
다이아몬드 필링	2 (2.5)	2 (6.1)	2 (3.3)
IPL	17 (21.3)	11 (33.3)	23 (38.3)
RF 고주파	2 (2.5)	1 (3.0)	6 (10.0)
Vitaliont	2 (2.5)	3 (9.1)	14 (23.3)
여드름 치료	24 (30.0)	6 (18.2)	3 (5.0)
레이저 필링	8 (10.0)	4 (12.1)	7 (11.7)
시술을 선호하는 이유(n=148)			
문제성 피부에 효과가 탁월하다	21 (36.2)	13 (59.1)	22 (75.9)
보습관리에 좋고 안전하고 간편하다	17 (29.3)	4 (18.2)	4 (13.8)
가격대비 만족한다	2 (3.4)	2 (9.1)	2 (6.9)
신뢰할 수 있다	15 (25.9)	3 (13.6)	1 (3.4)
기타	3 (5.2)	0 (0.0)	0 (0.0)

n=135	300~400만원 (n=8)	400~500만원 (n=12)	500만원 이상 (n=14)	p-value
메디컬 스킨케어 선호 이유				
신뢰감	2 (25.0)	5 (41.7)	3 (21.4)	0.177
관리 프로그램의 다양성	4 (50.0)	5 (41.7)	5 (35.7)	
효능, 효과가 확실해서	1 (12.5)	1 (8.3)	4 (28.6)	
주변 지인의 권유로	1 (12.5)	1 (8.3)	2 (14.3)	
메디컬 스킨케어 관리 기간				
3개월 미만	4 (50.0)	1 (8.3)	0 (0.0)	0.000***
3~6개월 미만	1 (12.5)	4 (33.3)	4 (28.6)	
6~12개월 미만	1 (12.5)	3 (25.0)	5 (35.7)	
1년~3년 미만	2 (25.0)	3 (25.0)	1 (7.1)	
3년 이상	0 (0.0)	1 (8.3)	4 (28.6)	
선호하는 메디컬 스킨케어 종류(n=227)				
해초박피	0 (0.0)	1 (6.7)	1 (4.3)	0.000***
호박 필링	0 (0.0)	2 (13.3)	3 (13.0)	
TCA 필링	0 (0.0)	1 (6.7)	0 (0.0)	
쿰스 필링	0 (0.0)	2 (13.3)	0 (0.0)	
글리콜릭산 필링	0 (0.0)	0 (0.0)	1 (4.3)	
크리스탈 필링	2 (12.5)	2 (13.3)	1 (4.3)	
다이아몬드 필링	4 (25.0)	1 (6.7)	2 (8.7)	
IPL	4 (25.0)	3 (20.0)	5 (21.7)	
RF 고주파	2 (12.5)	1 (6.7)	3 (13.0)	
Vitaliont	2 (12.5)	0 (0.0)	2 (8.7)	
여드름 치료	0 (0.0)	1 (6.7)	0 (0.0)	
레이저 필링	2 (12.5)	1 (6.7)	5 (21.7)	
시술을 선호하는 이유(n=148)				
문제성 피부에 효과가 탁월하다	6 (75.0)	11 (78.6)	10 (58.8)	0.094
보습관리에 좋고 안전하고 간편하다	2 (25.0)	1 (7.1)	5 (29.4)	
가격대비 만족한다	0 (0.0)	1 (7.1)	0 (0.0)	
신뢰할 수 있다	0 (0.0)	1 (7.1)	2 (11.8)	
기타	0 (0.0)	0 (0.0)	0 (0.0)	

¹⁾ : N(%)

P-value was measured by chi-square test

* p<0.05 ** p<0.01 *** p<0.001

4) 메디컬 스킨케어 만족도

메디컬 스킨케어의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메디컬 스킨케어의 효과정도에서 “효과가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20대 70.4%, 30대 60.0%, 40대 72.7%, 50대 87.5%로 연령대에 상관없이 효과정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p < 0.05$). 메디컬 스킨케어의 이미지는 “청결하다”와 “편안하다”가 모든 연령대에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이미지로 조사되었다.

모든 연령대에서 80.0%이상이 메디컬 스킨케어를 다시 이용하겠다고 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신뢰할 수 있다”, “효과가 탁월하다”로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메디컬 스킨케어를 다시 이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효과가 없다”, “통증이 있다”가 모든 연령대에서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메디컬 스킨케어의 재이용 이유로 정은진(2007)의 담당자의 서비스가 좋았다. 라는 응답이 가장 높아 본 연구결과에서의 “신뢰할 수 있다”, “효과가 탁월하다”는 이유와 조금 다른 차이점을 보여준다. 설문 대상자의 가치기준에 따라 서비스적인 부분과 시술의 효과적인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을 수 있으나 결론적으로 위 두가지 부분이 모두 만족되었을 때 보다 효과적인 만족도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표 8. 연령대에 따른 메디컬 스킨케어 만족도

	20대 (n=98)	30대 (n=20)	40대 (n=11)	50대 (n=8)	p-value
메디컬 스킨케어 효과정도					
매우 효과가 좋다	10 (10.2) ¹⁾	4 (20.0)	2 (18.2)	0 (0.0)	0.029*
효과가 있다	69 (70.4)	12 (60.0)	8 (72.7)	7 (87.5)	
보통이다	17 (17.3)	4 (20.0)	0 (0.0)	0 (0.0)	
효과가 없다	2 (2.0)	0 (0.0)	0 (0.0)	1 (12.5)	
매우 효과 없다	0 (0.0)	0 (0.0)	1 (9.1)	0 (0.0)	
메디컬 스킨케어 관리사들의 전문성 정도					
매우 전문성이 있다	11 (11.2)	2 (10.0)	1 (9.1)	0 (0.0)	0.111
전문성이 있다	66 (67.3)	15 (75.0)	5 (45.5)	4 (50.0)	
보통이다	13 (13.3)	3 (15.0)	2 (18.2)	2 (25.0)	
전문성이 없다	4 (4.1)	0 (0.0)	3 (27.3)	2 (25.0)	
전혀 전문성이 없다	4 (4.1)	0 (0.0)	0 (0.0)	0 (0.0)	
메디컬 스킨케어 시 이미지					
청결하다	45 (45.9)	10 (50.0)	7 (63.6)	2 (25.0)	0.853
불결하다	5 (5.1)	0 (0.0)	0 (0.0)	0 (0.0)	
편안하다	42 (42.9)	9 (45.0)	4 (36.4)	6 (75.0)	
불편하다	4 (4.1)	1 (5.0)	0 (0.0)	0 (0.0)	
기타	2 (2.0)	0 (0.0)	0 (0.0)	0 (0.0)	
메디컬 스킨케어 추후 재이용 여부					
이용하겠다	79 (81.4)	18 (90.0)	9 (81.8)	7 (87.5)	0.804
이용하지 않겠다	18 (18.6)	2 (10.0)	2 (18.2)	1 (12.5)	
메디컬 스킨케어 재이용 이유(n=113)					
효과가 탁월하다	39 (49.4)	6 (33.3)	4 (44.4)	1 (14.3)	0.100
통증이 없다	0 (0.0)	0 (0.0)	1 (11.1)	0 (0.0)	
비용이 저렴하다	2 (2.5)	0 (0.0)	0 (0.0)	0 (0.0)	
신뢰할 수 있다	29 (36.7)	9 (50.0)	4 (44.4)	5 (71.4)	
서비스가 좋다	9 (11.4)	3 (16.7)	0 (0.0)	1 (14.3)	
메디컬 스킨케어 재이용하지 않는 이유(n=22)					
효과가 없다	7 (41.2)	0 (0.0)	1 (50.0)	1 (100.0)	0.520
통증이 있다	2 (11.8)	2 (100.0)	1 (50.0)	0 (0.0)	
비용이 비싸다	5 (29.4)	0 (0.0)	0 (0.0)	0 (0.0)	
신뢰할 수 없다	2 (11.8)	0 (0.0)	0 (0.0)	0 (0.0)	
서비스가 나쁘다	1 (5.9)	0 (0.0)	0 (0.0)	0 (0.0)	

¹⁾ : N(%)

P-value was measured by chi-square test

* p<0.05 ** p<0.01 *** p<0.001

3. 일반 스킨케어(General Skin-care)

1) 연령대별 이용행태 비교

표 9는 연령대에 따라 일반 스킨케어 이용경험을 비교한 결과이다. 일반 스킨케어를 알게 된 경로는 50대의 80.0%가 “지인의 권유”로 나타나 다른 연령대에 비해 지인을 통해 시작하게 된 경우가 유의적으로 높았으며($p<0.01$), 일반 스킨케어를 선호하는 이유 역시 주변의 권유에 의해서라는 응답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p<0.000$). 이는 이해원(2009)의 연구결과와 일치함을 보이고 있어 지인을 통한 방문이 일종의 마케팅방법으로서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메디컬 스킨케어와 마찬가지로 일반 스킨케어 관리 기간 역시 연령대가 높을 수록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p<0.000$), 선호하는 일반 스킨케어의 종류에서는 50대에 비해 20~40대가 기기를 병행한 관리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p<0.01$). 위의 시술을 선호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20대가 30~50대에 비해 가격대비 만족도가 낮고, 보습관리, 안전성과 간편성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0.01$).

표 9. 연령대에 따른 일반 스킨케어 행태

	20대 (n=88)	30대 (n=31)	40대 (n=22)	50대 (n=10)	p-value
일반 스킨케어를 알게 된 경로					
인터넷	16 (18.2) ¹⁾	3 (9.7)	0 (0.0)	0 (0.0)	0.001**
지인의 권유	30 (34.1)	22 (71.0)	18 (81.8)	8 (80.0)	
신문, 잡지 광고	27 (30.7)	3 (9.7)	1 (4.5)	0 (0.0)	
TV	7 (8.0)	1 (3.2)	1 (4.5)	0 (0.0)	
기타	8 (9.1)	2 (6.5)	2 (9.1)	2 (20.0)	
일반 스킨케어 선호 이유					
신뢰감	15 (17.0)	13 (41.9)	3 (13.6)	2 (20.0)	0.000***
관리 프로그램의 다양성	52 (59.1)	9 (29.0)	8 (36.4)	1 (10.0)	
효능, 효과가 확실해서	11 (12.5)	7 (22.6)	1 (4.5)	1 (10.0)	
주변 지인의 권유로	10 (11.4)	2 (6.5)	10 (45.5)	6 (60.0)	
일반 스킨케어 관리 기간					
3개월 미만	43 (49.4)	4 (12.9)	1 (4.5)	3 (30.0)	0.000***
3~6개월 미만	32 (36.8)	14 (45.2)	5 (22.7)	2 (20.0)	
6~12개월 미만	7 (8.0)	5 (16.1)	4 (18.2)	2 (20.0)	
1년~3년 미만	3 (3.4)	7 (22.6)	4 (18.2)	3 (30.0)	
3년 이상	2 (2.3)	1 (3.2)	8 (36.4)	0 (0.0)	
선호하는 일반 스킨케어 종류(n=229)					
일반피부미용마사지(보습,탄력,미백 등)	55 (34.0)	18 (51.4)	10 (45.5)	6 (60.0)	0.034*
아로마 마사지	32 (19.8)	1 (2.9)	2 (9.1)	0 (0.0)	
미용경락 마사지	25 (15.4)	6 (17.1)	6 (27.3)	4 (40.0)	
립프 마사지	13 (8.0)	4 (11.4)	0 (0.0)	0 (0.0)	
기기를 병행한 관리	37 (22.8)	6 (17.1)	4 (18.2)	0 (0.0)	
시술을 선호하는 이유 (n=183)					
문제성 피부에 효과가 탁월하다	31 (30.1)	18 (41.9)	7 (28.0)	6 (50.0)	0.026*
보습관리에 좋고 안전하고 간편하다	53 (51.5)	12 (27.9)	11 (44.0)	4 (33.3)	
가격대비 만족한다	6 (5.8)	11 (25.6)	5 (20.0)	2 (16.7)	
신뢰할 수 있다	12 (11.7)	1 (2.3)	2 (8.0)	0 (0.0)	
기타	1 (1.0)	1 (2.3)	0 (0.0)	0 (0.0)	

¹⁾ : N(%)

P-value was measured by chi-square test

* p<0.05 ** p<0.01 *** p<0.001

2) 직업별 이용행태 비교

직업별 일반 스킨케어 이용경험을 비교한 결과이다. 일반 스킨케어를 알게 된 경로는 학생을 제외한 모든 직업에서 “지인의 권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p < 0.01$). 일반 스킨케어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학생과 서비스업에서 “관리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자영업, 주부와 전문직에서는 “지인의 권유”를 꼽았다($p < 0.01$). 일반 스킨케어 관리 기간은 학생의 49.2%와 회사원의 53.3%가 3개월 미만으로 짧은 기간 동안 받은 대상자가 많았으며 전문직의 경우 1년 이상 관리를 받은 대상자가 타 직업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비율을 보였다($p < 0.000$). 선호하는 일반 스킨케어의 종류로는 “일반 피부미용 마사지”가 높은 비율을 차지해 직업별 차이가 없었다. 위의 시술을 선호하는 이유로 학생의 16.0%가 “신뢰할 수 있다”라고 응답하여 타 직업의 “보습관리에 좋고 안전하고 간편하다”와는 다른 이유를 들었다($p < 0.01$). (표 10)

일반 스킨케어를 알게 된 경로에서 노상은(2011), 김수빈(2008)의 연구결과 중 “지인의 권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 본 연구와 동일하지만, 박현정(2011)의 TV 등 언론 매체들에 의한 영향이 가장 크다는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각종 매체 외에도 소비자 마케팅부분에서 기존 고객의 만족도가 곧 또다른 신규고객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 직업에 따른 일반 스킨케어 행태

n=151	학생 (n=64)	회사원(n=15)	자영업(n=12)
일반 스킨케어 선호 이유			
신뢰감	13 (20.3)	3 (20.0)	3 (25.0)
관리 프로그램의 다양성	37 (57.8)	6 (40.0)	4 (33.3)
효능, 효과가 확실해서	7 (10.9)	4 (26.7)	1 (8.3)
주변 지인의 권유로	7 (10.9)	2 (13.3)	4 (33.3)
일반 스킨케어 관리 기간			
3개월 미만	31 (49.2)	8 (53.3)	1 (8.3)
3~6개월 미만	23 (36.5)	5 (33.3)	4 (33.3)
6~12개월 미만	5 (7.9)	1 (6.7)	3 (25.0)
1년~3년 미만	2 (3.2)	0 (0.0)	2 (16.7)
3년 이상	2 (3.2)	1 (6.7)	2 (16.7)
선호하는 일반 스킨케어 종류 (n=229)			
일반 피부미용마사지(보습,탄력,미백 등)	44 (34.1)	9 (56.3)	7 (46.7)
아로마 마사지	26 (20.2)	1 (6.3)	1 (6.7)
미용경락 마사지	21 (16.3)	2 (12.5)	4 (26.7)
림프 마사지	9 (7.0)	2 (12.5)	1 (6.7)
기기를 병행한 관리	29 (22.5)	2 (12.5)	2 (13.3)
기술을 선호하는 이유 (n=183)			
문제성 피부에 효과가 탁월하다	23 (30.7)	4 (23.5)	7 (46.7)
보습관리에 좋고 안전하고 간편하다	36 (48.0)	10 (58.8)	5 (33.3)
가격대비 만족한다	4 (5.3)	2 (11.8)	3 (20.0)
신뢰할 수 있다	12 (16.0)	1 (5.9)	0 (0.0)
기타	0 (0.0)	0 (0.0)	0 (0.0)

n=151	서비스업(n=14)	주부(n=27)	전문직(n=19)	p-value
일반 스킨케어 선호 이유				
신뢰감	1 (7.1)	8 (29.6)	5 (26.3)	0.039*
관리 프로그램의 다양성	10 (71.4)	7 (25.9)	6 (31.6)	
효능, 효과가 확실해서	3 (21.4)	2 (7.4)	3 (15.8)	
주변 지인의 권유로	0 (0.0)	10 (37.0)	5 (26.3)	
일반 스킨케어 관리 기간				
3개월 미만	4 (28.6)	6 (22.2)	1 (5.3)	0.000***
3~6개월 미만	6 (42.9)	9 (33.3)	6 (31.6)	
6~12개월 미만	2 (14.3)	2 (7.4)	5 (26.3)	
1년~3년 미만	1 (7.1)	6 (22.2)	6 (31.6)	
3년 이상	1 (7.1)	4 (14.8)	1 (5.3)	
선호하는 일반 스킨케어 종류 (n=229)				
일반 피부미용마사지(보습,탄력,미백 등)	6 (26.1)	15 (55.6)	8 (42.1)	0.196
아로마 마사지	5 (21.7)	0 (0.0)	2 (10.5)	
미용경락 마사지	2 (8.7)	8 (29.6)	4 (21.1)	
립프 마사지	3 (13.0)	1 (3.7)	1 (5.3)	
기기를 병행한 관리	7 (30.4)	3 (11.1)	4 (21.1)	
시술을 선호하는 이유 (n=183)				
문제성 피부에 효과가 탁월하다	7 (36.8)	10 (31.3)	11 (44.0)	0.024*
보습관리에 좋고 안전하고 간편하다	10 (52.6)	10 (31.3)	9 (36.0)	
가격대비 만족한다	1 (5.3)	10 (31.3)	4 (16.0)	
신뢰할 수 있다	0 (0.0)	1 (3.1)	1 (4.0)	
기타	1 (5.3)	1 (3.1)	0 (0.0)	

¹⁾ : N(%)

P-value was measured by chi-square test

* p<0.05 ** p<0.01 *** p<0.001

3) 소득별 이용행태 비교

월 평균 소득에 따른 일반 스킨케어 이용경험을 비교한 결과이다(표 11). 일반 스킨케어를 알게된 경로는 월 평균 소득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월 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일반 스킨케어 프로그램의 다양성으로 인해 일반 스킨케어를 선호하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p=0.01$). 일반 스킨케어의 관리기간은 월 평균 소득이 높은 경우 그 기간이 유의하게 긴 것으로 조사되었으나($p<0.000$), 선호하는 일반 스킨케어 종류와 이유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최정임(2009)의 연구결과 중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일반 스킨케어에서의 관리 경험이 많다. 라는 응답과 본 연구결과는 조금 다른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문화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선호하는 스킨케어 종류에 따른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11. 소득에 따른 일반 스킨케어 행태

n=149	100만원 이하 (n=60)	100~200만원 (n=17)	200~300만원 (n=19)
일반 스킨케어 선호 이유			
신뢰감	12 (20.0)	4 (23.5)	2 (10.5)
관리 프로그램의 다양성	36 (60.0)	9 (52.9)	8 (42.1)
효능, 효과가 확실해서	6 (10.0)	3 (17.6)	3 (15.8)
주변 지인의 권유로	6 (10.0)	1 (5.9)	6 (31.6)
일반 스킨케어 관리 기간			
3개월 미만	29 (48.3)	6 (35.3)	10 (52.6)
3~6개월 미만	22 (36.7)	8 (47.1)	6 (31.6)
6~12개월 미만	5 (8.3)	3 (17.6)	1 (5.3)
1년~3년 미만	3 (5.0)	0 (0.0)	1 (5.3)
3년 이상	1 (1.7)	0 (0.0)	1 (5.3)
선호하는 일반 스킨케어 종류 (n=226)			
일반 피부미용마사지(보습, 탄력, 미백 등)	40 (33.3)	12 (42.9)	7 (33.3)
아로마 마사지	25 (20.8)	5 (17.9)	1 (4.8)
미용경락 마사지	19 (15.8)	3 (10.7)	5 (23.8)
립프 마사지	10 (8.3)	3 (10.7)	0 (0.0)
기기를 병행한 관리	26 (21.7)	5 (17.9)	8 (38.1)
시술을 선호하는 이유 (n=181)			
문제성 피부에 효과가 탁월하다	21 (30.0)	8 (38.1)	6 (26.1)
보습관리에 좋고 안전하고 간편하다	36 (51.4)	9 (42.9)	9 (39.1)
가격대비 만족한다	2 (2.9)	3 (14.3)	7 (30.4)
신뢰할 수 있다	11 (15.7)	1 (4.8)	1 (4.3)
기타	0 (0.0)	0 (0.0)	0 (0.0)

n=149	300~400만원 (n=16)	400~500만원 (n=10)	500만원 이상 (n=27)	p-value
일반 스킨케어 선호 이유				
신뢰감	4 (25.0)	1 (10.0)	10 (37.0)	0.044*
관리 프로그램의 다양성	5 (31.3)	2 (20.0)	9 (33.3)	
효능, 효과가 확실해서	4 (25.0)	2 (20.0)	2 (7.4)	
주변 지인의 권유로	3 (18.8)	5 (50.0)	6 (22.2)	
일반 스킨케어 관리 기간				
3개월 미만	2 (12.5)	0 (0.0)	2 (7.7)	0.000***
3~6개월 미만	4 (25.0)	2 (20.0)	11 (42.3)	
6~12개월 미만	6 (37.5)	3 (30.0)	0 (0.0)	
1년~3년 미만	2 (12.5)	1 (10.0)	10 (38.5)	
3년 이상	2 (12.5)	4 (40.0)	3 (11.5)	
선호하는 일반 스킨케어 종류 (n=226)				
일반 피부미용마사지(보습, 탄력, 미백 등)	7 (35.0)	6 (60.0)	16 (59.3)	0.060
아로마 마사지	2 (10.0)	0 (0.0)	1 (3.7)	
미용경락 마사지	4 (20.0)	1 (10.0)	8 (29.6)	
림프 마사지	2 (10.0)	2 (20.0)	0 (0.0)	
기기를 병행한 관리	5 (25.0)	1 (10.0)	2 (7.4)	
시술을 선호하는 이유 (n=181)				
문제성 피부에 효과가 탁월하다	9 (42.9)	6 (46.2)	12 (36.4)	0.086
보습관리에 좋고 안전하고 간편하다	7 (33.3)	5 (38.5)	13 (39.4)	
가격대비 만족한다	3 (14.3)	2 (15.4)	6 (18.2)	
신뢰할 수 있다	1 (4.8)	0 (0.0)	1 (3.0)	
기타	1 (4.8)	0 (0.0)	1 (3.0)	

¹⁾ : N(%)

P-value was measured by chi-square test

* p<0.05 ** p<0.01 *** p<0.001

4) 일반 스킨케어 이용 만족도

일반 스킨케어 이용 만족도를 표 12에 제시하였다. 일반 스킨케어 효과정도는 모든 연령대에서 “효과가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일반 스킨케어 관리사들이 전문성 정도 역시 모든 연령대에서 “전문성이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일반 스킨케어의 이미지는 “편안하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메디컬 스킨케어에 비해 “청결하다”라고 답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일반 스킨케어를 ‘다시 이용 하겠다’ 라고 답한 응답자는 모든 연령대에서 80.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재이용 이유로는 20대와 40대에서는 “효과가 탁월하다”, 30대와 50대에서는 “서비스가 좋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반 스킨케어를 재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20대의 60.0%가 “효과가 없다”, 40대는 “신뢰할 수 없다”, 50대는 “비용이 비싸다”의 이유로 연령대에 따라 그 이유가 다르게 나타났다($p < 0.01$). 일반 스킨케어를 권유하겠다는 응답자는 모든 연령대에서 80.0%가량이 권유하겠다고 답하였으며, 권유하지 않는 이유는 “관리 후 효과가 없어서”, “가격이 비싸서”로 연령대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표 12. 연령대에 따른 일반 스킨케어 만족도

	20대 (n=88)	30대 (n=31)	40대 (n=22)	50대 (n=10)	p-value
일반 스킨케어 효과정도					
매우 효과가 좋다	6 (6.8) ¹⁾	4 (12.9)	0 (0.0)	1 (10.0)	0.708
효과가 있다	54 (61.4)	21 (67.7)	19 (86.4)	7 (70.0)	
보통이다	25 (28.4)	6 (19.4)	3 (13.6)	2 (20.0)	
효과가 없다	2 (2.3)	0 (0.0)	0 (0.0)	0 (0.0)	
매우 효과 없다	1 (1.1)	0 (0.0)	0 (0.0)	0 (0.0)	
일반 스킨케어 관리사들의 전문성 정도					
매우 전문성이 있다	8 (9.1)	3 (9.7)	0 (0.0)	1 (10.0)	0.755
전문성이 있다	55 (62.5)	16 (51.6)	15 (68.2)	6 (60.0)	
보통이다	19 (21.6)	7 (22.6)	3 (13.6)	2 (20.0)	
전문성이 없다	5 (5.7)	5 (16.1)	4 (18.2)	1 (10.0)	
전혀 전문성이 없다	1 (1.1)	0 (0.0)	0 (0.0)	0 (0.0)	
일반 스킨케어 시 이미지					
청결하다	21 (23.9)	7 (22.6)	5 (22.7)	0 (0.0)	0.192
불결하다	2 (2.3)	2 (6.5)	1 (4.5)	0 (0.0)	
편안하다	64 (72.7)	21 (67.7)	14 (63.6)	10 (100.0)	
불편하다	1 (1.1)	0 (0.0)	2 (9.1)	0 (0.0)	
기타	0 (0.0)	1 (3.2)	0 (0.0)	0 (0.0)	
일반 스킨케어 추후 재이용 여부					
이용하겠다	76 (86.4)	29 (93.5)	20 (90.9)	10 (100.0)	0.447
이용하지 않겠다	12 (13.6)	2 (6.5)	2 (9.1)	0 (0.0)	
일반 스킨케어 재이용 이유					
효과가 탁월하다	6 (46.2)	1 (14.3)	2 (66.7)	0 (0.0)	0.655
통증이 없다	1 (7.7)	0 (0.0)	0 (0.0)	0 (0.0)	
비용이 저렴하다	0 (0.0)	1 (14.3)	0 (0.0)	0 (0.0)	
신뢰할 수 있다	3 (23.1)	1 (14.3)	0 (0.0)	1 (50.0)	
서비스가 좋다	3 (23.1)	4 (57.1)	1 (33.3)	1 (50.0)	
일반 스킨케어를 재이용하지 않는 이유					
효과가 없다	6 (60.0)	0 (0.0)	0 (0.0)	0 (0.0)	0.036*
통증이 있다	1 (10.0)	0 (0.0)	0 (0.0)	0 (0.0)	
비용이 비싸다	2 (20.0)	1 (50.0)	0 (0.0)	1 (100.0)	
신뢰할 수 없다	0 (0.0)	0 (0.0)	2 (100.0)	0 (0.0)	
서비스가 나쁘다	1 (10.0)	1 (50.0)	0 (0.0)	0 (0.0)	

¹⁾ : N(%)

P-value was measured by chi-square test

* p<0.05 ** p<0.01 *** p<0.001

4. 자가 피부관리(Self Skin-care)

1) 연령대별 이용행태 비교

연령대에 따른 자가 피부관리 행태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3). 전문 피부관리를 받지 않는 이유는 모든 연령대에서 “비용이 부담스러워서”라고 답하였으나, 30~40대에서 “집안일이나 직장일 때문에”의 이유가 20대와 50대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다($p<0.000$).

자가 피부 중 가장 중요한 관리법으로는 “기초클렌징과 각질제거를 위한 딥클렌징”이 20대의 48.8%, 30대의 39.1%, 40대의 35.5%로 가장 높았으며, 50대에서는 “효과적인 에센스나 앰플이용”이 42.1%로 가장 높았으나 연령대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자가 피부관리가 피부에 미치는 효과에서는 “매우 효과가 있다”가 20대에서 3.3%로 30~50대의 20.0% 응답률보다 현저하게 낮아 20대에서 자가 피부관리가 피부에 미치는 효과가 적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0$). 사용 중인 기초화장품의 종류에서 모든 연령대에서 화장수 또는 로션이 가장 사용 빈도가 높았으나, 영양크림은 연령대가 증가 할 수록, 마스크팩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그 사용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는 최정임(2009)의 연구에서 사용빈도의 조사결과 화장수 혹은 로션(16.9%), 전용크린싱(16.3%), 에센스나 앰플(15.0%), 자외선차단제(14.9%), 아이크림(13.0%)의 순으로 화장수와 로션의 사용빈도는 동일했으나, 다른 제품의 사용 빈도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표 13. 연령대에 따른 자가 피부관리 행태

	20대 (n=127)	30대 (n=23)	40대 (n=31)	50대 (n=19)	p-value
전문 피부관리를 받지 않는 이유(n=238)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60 (40.5)	12 (48.0)	18 (40.0)	8 (40.0)	0.000***
시간이 없어서	38 (25.7)	2 (8.0)	4 (8.9)	2 (10.0)	
신뢰할 수 없어서	18 (12.2)	3 (12.0)	3 (6.7)	3 (15.0)	
거부감이 들어서	6 (4.1)	0 (0.0)	6 (13.3)	0 (0.0)	
자가 관리만으로 충분해서	13 (8.8)	0 (0.0)	0 (0.0)	0 (0.0)	
집안일이나 직장일 때문에	5 (3.4)	6 (24.0)	9 (20.0)	3 (15.0)	
기타	8 (5.4)	2 (8.0)	5 (11.1)	4 (20.0)	
자가 관리시 가장 중요한 관리법					
색조화장품을 지우기 위한 기초 클렌징	33 (26.0)	4 (17.4)	10 (32.3)	4 (21.1)	0.098
기초클렌징과 각질 제거를 위한 딥클렌징	62 (48.8)	9 (39.1)	11 (35.5)	3 (15.8)	
효과적인 에센스나 앰플이용	21 (16.5)	4 (17.4)	6 (19.4)	8 (42.1)	
정기적인 마사지나 마스크	5 (3.9)	2 (8.7)	1 (3.2)	1 (5.3)	
자가 관리용 미용기기 사용	6 (4.7)	4 (17.4)	3 (9.7)	3 (15.8)	
자가 관리가 피부에 미치는 영향					
매우 효과가 있다	4 (3.3)	6 (26.1)	8 (25.8)	6 (31.6)	0.000***
효과가 있다	56 (45.9)	13 (56.5)	18 (58.1)	10 (52.6)	
보통이다	59 (48.4)	4 (17.4)	5 (16.1)	3 (15.8)	
효과가 없다	2 (1.6)	0 (0.0)	0 (0.0)	0 (0.0)	
전혀 효과가 없다	1 (0.8)	0 (0.0)	0 (0.0)	0 (0.0)	
사용하고 있는 기초화장품					
전용 클렌징	82 (16.8)	19 (14.4)	22 (13.7)	9 (10.5)	0.040*
에센스나 앰플	81 (16.6)	18 (13.6)	24 (14.9)	15 (17.4)	
아이크림	60 (12.3)	17 (12.9)	23 (14.3)	12 (14.0)	
마사지 크림	24 (4.9)	9 (6.8)	12 (7.5)	6 (7.0)	
화장수 혹은 로션	92 (18.9)	23 (17.4)	31 (19.3)	19 (22.1)	
자외선 차단제	81 (16.6)	20 (15.2)	15 (9.3)	9 (10.5)	
영양크림	32 (6.6)	17 (12.9)	26 (16.1)	15 (17.4)	
마스크팩	36 (7.4)	9 (6.8)	8 (5.0)	1 (1.2)	

¹⁾ : N(%)

P-value was measured by chi-square test

* p<0.05 ** p<0.01 *** p<0.001

2) 직업별 이용행태 비교

직업에 따른 자가 피부관리 행태를 비교하였다. 전문 피부관리를 받지 않는 이유로는 모든 직업에서 “비용이 부담스러워서”라고 답한 경우가 높았으나, 학생을 제외한 타 직업에서 “집안일이나 직장일 때문에” 관리를 받지 못한 다고 답한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p < 0.000$). 자가 관리시 중요한 관리법으로는 “기초클렌징과 각질 제거를 위한 딥클렌징”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자가 피부관리의 효과에서 회사원, 자영업과 주부에서 “효과가 매우 좋다”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다른 직업에 비해 유의하게 많았다($p < 0.01$). 사용하고 있는 기초 화장품은 직업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다. (표 14)

전문 피부관리를 받지 않는 이유로 최정임(2009), 홍연숙(2005)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으며 비용적인 부담과 상관없이 자가관리를 통한 방법으로 피부관리에 신경을 쓰는 집단이 있음을 보여준다.

표 14. 직업에 따른 자가 피부관리 행태

n=200	학생 (n=85)	회사원 (n=17)	자영업 (n=9)
전문 피부관리를 받지 않는 이유(n=238)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44 (41.1) ¹⁾	6 (33.3)	4 (33.3)
시간이 없어서	29 (27.1)	3 (16.7)	0 (0.0)
신뢰할 수 없어서	10 (9.3)	5 (27.8)	2 (16.7)
거부감이 들어서	3 (2.8)	0 (0.0)	2 (16.7)
자가 관리만으로 충분해서	11 (10.3)	1 (5.6)	0 (0.0)
집안일이나 직장일 때문에	3 (2.8)	3 (16.7)	2 (16.7)
기타	7 (6.5)	0 (0.0)	2 (16.7)
자가 관리시 가장 중요한 관리법			
색조화장품을 지우기 위한 기초 클렌징	22 (25.9)	1 (5.9)	3 (33.3)
기초클렌징과 각질 제거를 위한 딥클렌징	42 (49.4)	8 (47.1)	4 (44.4)
효과적인 에센스나 앰플이용	14 (16.5)	6 (35.3)	1 (11.1)
정기적인 마사지나 마스크	3 (3.5)	2 (11.8)	0 (0.0)
자가 관리용 미용기기 사용	4 (4.7)	0 (0.0)	1 (11.1)
자가 관리가 피부에 미치는 영향			
매우 효과가 있다	3 (3.5)	2 (18.2)	2 (22.2)
효과가 있다	40 (46.5)	4 (36.4)	6 (66.7)
보통이다	41 (47.7)	5 (45.5)	1 (11.1)
효과가 없다	1 (1.2)	0 (0.0)	0 (0.0)
전혀 효과가 없다	1 (1.2)	0 (0.0)	0 (0.0)
사용하고 있는 기초화장품(n=867)			
전용 클렌징	53 (16.2)	14 (18.4)	8 (17.0)
에센스나 앰플	50 (15.2)	11 (14.5)	8 (17.0)
아이크림	36 (11.0)	9 (11.8)	5 (10.6)
마사지 크림	18 (5.5)	3 (3.9)	2 (4.3)
화장수 혹은 로션	65 (19.8)	15 (19.7)	9 (19.1)
자외선 차단제	48 (14.6)	16 (21.1)	6 (12.8)
영양크림	29 (8.8)	4 (5.3)	6 (12.8)
마스크팩	29 (8.8)	4 (5.3)	3 (6.4)

n=200	서비스업 (n=32)	주부 (n=54)	전문직 (n=3)	p-value
전문 피부관리를 받지 않는 이유(n=238)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13 (43.3)	29 (44.6)	2 (33.3)	0.000***
시간이 없어서	6 (20.0)	7 (10.8)	1 (16.7)	
신뢰할 수 없어서	6 (20.0)	3 (4.6)	1 (16.7)	
거부감이 들어서	3 (10.0)	4 (6.2)	0 (0.0)	
자가 관리만으로 충분해서	1 (3.3)	0 (0.0)	0 (0.0)	
집안일이나 직장일 때문에	1 (3.3)	13 (20.0)	1 (16.7)	
기타	0 (0.0)	9 (13.8)	1 (16.7)	
자가 관리시 가장 중요한 관리법				
색조화장품을 지우기 위한 기초 클렌징	10 (31.3)	14 (25.9)	1 (33.3)	0.446
기초클렌징과 각질 제거를 위한 딥클렌징	12 (37.5)	18 (33.3)	1 (33.3)	
효과적인 에센스나 앰플이용	7 (21.9)	10 (18.5)	1 (33.3)	
정기적인 마사지나 마스크	0 (0.0)	4 (7.4)	0 (0.0)	
자가 관리용 미용기기 사용	3 (9.4)	8 (14.8)	0 (0.0)	
자가 관리가 피부에 미치는 영향				
매우 효과가 있다	1 (3.1)	16 (29.6)	0 (0.0)	0.008**
효과가 있다	16 (50.0)	29 (53.7)	2 (66.7)	
보통이다	14 (43.8)	9 (16.7)	1 (33.3)	
효과가 없다	1 (3.1)	0 (0.0)	0 (0.0)	
전혀 효과가 없다	0 (0.0)	0 (0.0)	0 (0.0)	
사용하고 있는 기초화장품(n=867)				
전용 클렌징	21 (15.8)	35 (13.1)	1 (6.7)	0.527
에센스나 앰플	25 (18.8)	41 (15.3)	3 (20.0)	
아이크림	22 (16.5)	38 (14.2)	2 (13.3)	
마사지 크림	8 (6.0)	19 (7.1)	1 (6.7)	
화장수 혹은 로션	19 (14.3)	54 (20.1)	3 (20.0)	
자외선 차단제	24 (18.0)	29 (10.8)	2 (13.3)	
영양크림	10 (7.5)	40 (14.9)	1 (6.7)	
마스크팩	4 (3.0)	12 (4.5)	2 (13.3)	

¹⁾ : N(%)

P-value was measured by chi-square test

* p<0.05 ** p<0.01 *** p<0.001

3) 소득별 이용행태 비교

표 15는 월 평균 소득에 따른 자가 피부관리 행태에 대한 결과이다. 전문 피부관리를 받지 않는 이유로 월 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인 경우 비용적인 문제라고 답한 응답자가 48.2%로 다른 소득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p < 0.000$). 또한 자가 피부 관리 방법 중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자가 관리용 미용기기 사용”이라고 응답한 대상자의 비율이 월 평균 소득이 300~500만원 미만인 경우에서 높게 나타났으며($p < 0.05$), 자가 피부관리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월 소득이 높을수록 그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p < 0.000$). 그러나, 월 평균 소득에 따른 사용 기초화장품의 종류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5. 소득에 따른 자가 피부관리 행태

	100만원 이하 (n=89)	100~200만원 (n=39)	200~300만원 (n=26)
전문 피부관리를 받지 않는 이유(n=236)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53 (48.2) ¹⁾	12 (30.0)	14 (48.3)
시간이 없어서	29 (26.4)	8 (20.0)	1 (3.4)
신뢰할 수 없어서	11 (10.0)	5 (12.5)	2 (6.9)
거부감이 들어서	2 (1.8)	3 (7.5)	1 (3.4)
자가 관리만으로 충분해서	8 (7.3)	4 (10.0)	1 (3.4)
집안일이나 직장일 때문에	3 (2.7)	2 (5.0)	7 (24.1)
기타	4 (3.6)	6 (15.0)	3 (10.3)
자가 관리시 가장 중요한 관리법			
색소화장품을 지우기 위한 기초 클렌징	25 (28.1)	8 (20.5)	11 (42.3)
기초클렌징과 각질 제거를 위한 딥클렌징	46 (51.7)	17 (43.6)	7 (26.9)
효과적인 에센스나 앰플이용	11 (12.4)	10 (25.6)	4 (15.4)
정기적인 마사지나 마스크	2 (2.2)	2 (5.1)	3 (11.5)
자가 관리용 미용기기 사용	5 (5.6)	2 (5.1)	1 (3.8)
자가 관리가 피부에 미치는 영향			
매우 효과가 있다	1 (1.1)	3 (9.1)	7 (26.9)
효과가 있다	39 (43.3)	18 (54.5)	16 (61.5)
보통이다	47 (52.2)	12 (36.4)	3 (11.5)
효과가 없다	2 (2.2)	0 (0.0)	0 (0.0)
전혀 효과가 없다	1 (1.1)	0 (0.0)	0 (0.0)
사용하고 있는 기초화장품(n=860)			
전용 클렌징	53 (16.0)	25 (15.0)	18 (14.5)
에센스나 앰플	54 (16.3)	30 (18.0)	19 (15.3)
아이크림	38 (11.4)	23 (13.8)	16 (12.9)
마사지 크림	19 (5.7)	8 (4.8)	8 (6.5)
화장수 혹은 로션	64 (19.3)	31 (18.6)	26 (21.0)
자외선 차단제	45 (13.6)	34 (20.4)	12 (9.7)
영양크림	30 (9.0)	10 (6.0)	17 (13.7)
마스크팩	29 (8.7)	6 (3.6)	8 (6.5)

	300~400만원 (n=256)	400~500만원 (n=15)	500만원 이상 (n=4)	p-value
전문 피부관리를 받지 않는 이유(n=236)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11 (37.9)	5 (25.0)	3 (37.5)	
시간이 없어서	4 (13.8)	3 (15.0)	0 (0.0)	
신뢰할 수 없어서	6 (20.7)	1 (5.0)	1 (12.5)	
거부감이 들어서	2 (6.9)	4 (20.0)	0 (0.0)	0.000***
자가 관리만으로 충분해서	0 (0.0)	0 (0.0)	0 (0.0)	
집안일이나 직장일 때문에	5 (17.2)	5 (25.0)	1 (12.5)	
기타	1 (3.4)	2 (10.0)	3 (37.5)	
자가 관리시 가장 중요한 관리법				
색조화장품을 지우기 위한 기초 클렌징	5 (20.0)	1 (6.7)	0 (0.0)	
기초클렌징과 각질 제거를 위한 딥클렌징	6 (24.0)	6 (40.0)	2 (50.0)	
효과적인 에센스나 앰플이용	8 (32.0)	4 (26.7)	2 (50.0)	0.033*
정기적인 마사지나 마스크	1 (4.0)	1 (6.7)	0 (0.0)	
자가 관리용 미용기기 사용	5 (20.0)	3 (20.0)	0 (0.0)	
자가 관리가 피부에 미치는 영향				
매우 효과가 있다	11 (44.0)	2 (13.3)	0 (0.0)	
효과가 있다	13 (52.0)	8 (53.3)	3 (75.0)	
보통이다	1 (4.0)	5 (33.3)	1 (25.0)	0.000***
효과가 없다	0 (0.0)	0 (0.0)	0 (0.0)	
전혀 효과가 없다	0 (0.0)	0 (0.0)	0 (0.0)	
사용하고 있는 기초화장품(n=860)				
전용 클렌징	20 (14.4)	12 (15.2)	2 (10.5)	
에센스나 앰플	21 (15.1)	10 (12.7)	3 (15.8)	
아이크림	18 (12.9)	13 (16.5)	3 (15.8)	
마사지 크림	10 (7.2)	6 (7.6)	0 (0.0)	
화장수 혹은 로션	24 (17.3)	15 (19.0)	4 (21.1)	0.833
자외선 차단제	20 (14.4)	9 (11.4)	3 (15.8)	
영양크림	20 (14.4)	10 (12.7)	3 (15.8)	
마스크팩	6 (4.3)	4 (5.1)	1 (5.3)	

¹⁾ : N(%)

P-value was measured by chi-square test

* p<0.05 ** p<0.01 *** p<0.001

4) 자가 피부관리자의 만족도

(1) 연령대별 자가 피부관리 만족도 비교

연령대별 자가 피부관리 만족도 결과를 비교하여 그림 1에 나타내었다. 자가 피부관리 만족도는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여 매우 만족할 경우 5점, 만족 4점, 보통 3점, 만족하지 않음 2점, 매우 만족하지 않음 1점으로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5점에 가까울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연령대별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50대가 4.1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으며, 30대와 40대 역시 4.09점, 4.10점으로 20대의 3.49점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0.000$). 즉, 20대의 경우 자가 피부관리 만족도가 30대~50대에 비해 떨어짐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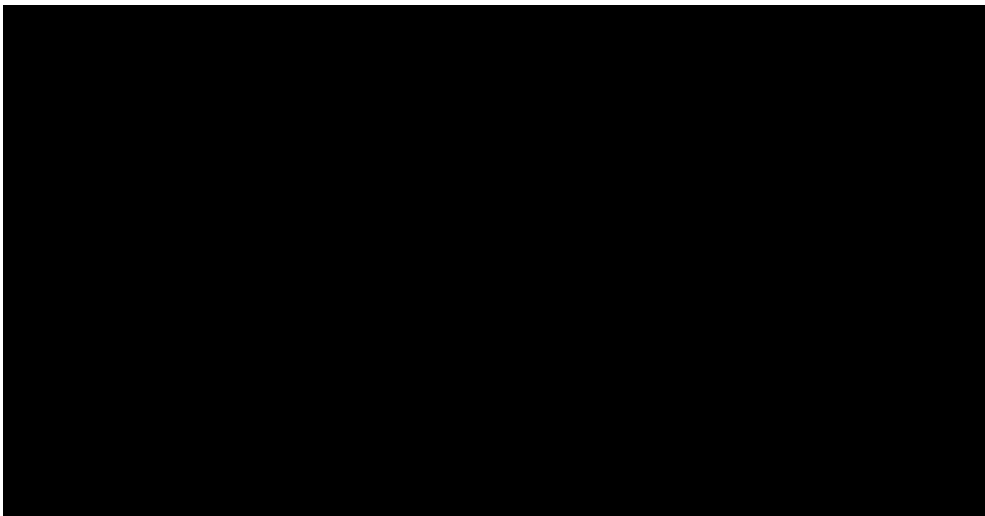


그림 1. 연령대에 따른 자가 피부관리 만족도 비교

(2) 직업별 자가 피부관리 만족도 비교

직업에 따른 자가 피부관리의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그림 2), 주부가 4.13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반면, 서비스업에서 3.53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p=0.000$). 학생, 회사원, 전문직의 경우에도 각각 3.50점, 3.73점, 3.67점으로 만족도가 자영업과 주부에 비해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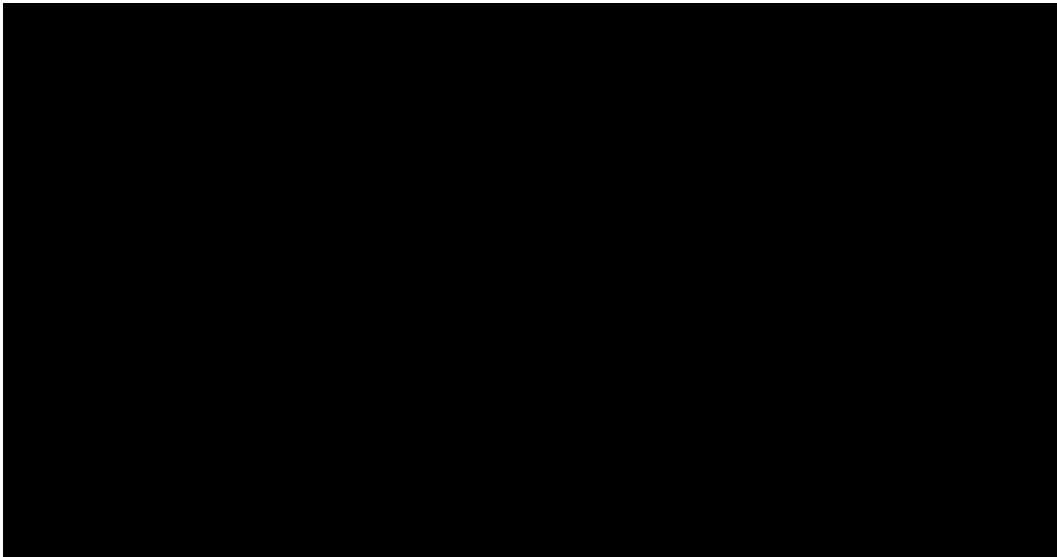


그림 2. 직업에 따른 자가 피부관리 만족도 비교

(3) 소득별 자가 피부관리 만족도 비교

소득에 따른 자가 피부관리 만족도를 비교하여 그림 3에 나타내었다. 월 평균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자가 피부관리의 만족도가 3.41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100~200만원 3.73점, 500만원 이상 3.75점, 400~500만원 3.80점, 300~400만원 4.15점, 300~400만원 4.40점의 순이었다. 소득이 아주 낮거나 높은 경우 자가 피부관리 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음을 알 수 있다($p=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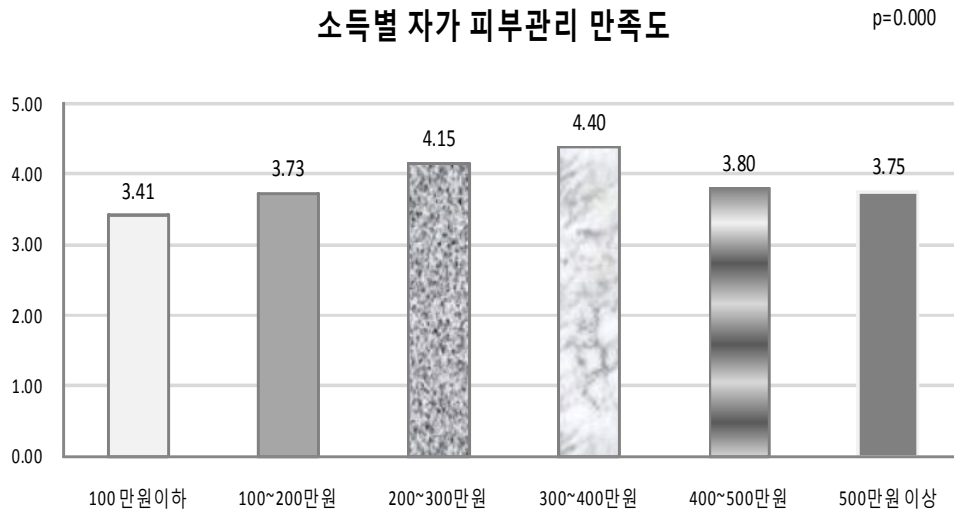


그림 3. 소득에 따른 자가 피부관리 만족도 비교

5. 스킨케어 유형에 따른 선호도 조사

1) 메디컬 스킨케어

자가 피부관리자의 메디컬 스킨케어 선호도를 살펴본 결과(표 16), 메디컬 스킨케어를 받는다면 어떤 종류를 받고 싶은지를 묻는 항목에서 20대는 “해초박피, 알라딘필링, MTS”가 24.4%로, 30대는 “IPL, 레이저 토닝”이 34.8%, 40대와 50대는 “RF 고주파”가 각 32.3%, 31.6%로 가장 높게 나타나 연령대에 따라 선호하는 메디컬 스킨케어의 종류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p < 0.05$). 그러나, 메디컬 스킨케어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문제성 피부에 효과가 탁월할 것 같아서”가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메디컬 스킨케어 후 기대 효과는 모든 연령대에서 80.0% 이상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메디컬 스킨케어를 받고 싶은 이유에서 30~50대까지는 신뢰감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나 20대에서는 관리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들어 20대에서 메디컬 스킨케어에 대한 신뢰감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유의하게 낮음을 알 수 있었다($p < 0.05$). 종류에 따른 메디컬 스킨케어 선호도 부분에서 이소영(2010)의 연구 중 선호하는 메디컬 시술의 종류를 묻는 항목에서 연령대와 상관없이 “IPL, 레이저 토닝”을 선호하는 연구결과와 유사함을 볼 수 있었지만 연령대에 따라서는 세심하게 살펴 볼 수 없었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로 인해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연령대에 따라 선호하는 메디컬 시술이 연령별로 나타날 수 있는 피부의 문제점 개선과 일치함을 볼 수 있었다.

표 16. 자가 피부관리자의 연령대별 메디컬 스킨케어 선호도

	20대 (n=127)	30대 (n=23)	40대 (n=31)	50대 (n=19)	p-value
메디컬 스킨케어 시 선호 시술 종류					
해초박피, 알라딘필링, MTS	31 (24.4) ¹⁾	2 (8.7)	7 (22.6)	3 (15.8)	
TCA, 콧스필링	17 (13.4)	3 (13.0)	3 (9.7)	2 (10.5)	
IPL, 레이저 토닝	26 (20.5)	8 (34.8)	6 (19.4)	3 (15.8)	
RF 고주파	9 (7.1)	6 (26.1)	10 (32.3)	6 (31.6)	0.019*
Vitaliont	25 (19.7)	2 (8.7)	5 (16.1)	4 (21.1)	
여드름 치료	18 (14.2)	1 (4.3)	0 (0.0)	1 (5.3)	
기타	1 (0.8)	1 (4.3)	0 (0.0)	0 (0.0)	
메디컬 스킨케어 선호 이유					
문제성 피부에 효과가 탁월할 것 같아서	50 (39.4)	17 (73.9)	22 (71.0)	10 (52.6)	
안전하고 간편할 것 같아서	50 (39.4)	3 (13.0)	5 (16.1)	5 (26.3)	0.064
가격대비 만족	8 (6.3)	1 (4.3)	3 (9.7)	2 (10.5)	
신뢰할 수 있다	19 (15.0)	2 (8.7)	1 (3.2)	2 (10.5)	
메디컬 스킨케어 후 기대효과					
매우 효과 있을 것이다	17 (13.5)	2 (8.7)	6 (19.4)	7 (36.8)	
효과 있을 것이다	94 (74.6)	18 (78.3)	21 (67.7)	11 (57.9)	0.387
보통일 것이다	13 (10.3)	2 (8.7)	2 (6.5)	1 (5.3)	
효과없을 것이다	1 (0.8)	1 (4.3)	1 (3.2)	0 (0.0)	
매우 효과 없을 것이다					
메디컬 스킨케어를 받고 싶은 이유					
신뢰감 때문에	27 (21.3)	12 (52.2)	15 (48.4)	10 (52.6)	
관리 프로그램의 다양성 때문에	50 (39.4)	5 (21.7)	7 (22.6)	4 (21.1)	0.013*
효능, 효과가 탁월할 것 같아서	38 (29.9)	4 (17.4)	8 (25.8)	5 (26.3)	
주변 지인의 권유로	12 (9.4)	2 (8.7)	1 (3.2)	0 (0.0)	

¹⁾ : N(%)

P-value was measured by chi-square test

* p<0.05 ** p<0.01 *** p<0.001

2) 일반 스킨케어

표 17에는 자가 피부관리자의 일반 스킨케어 선호도 비교 결과를 나타내었다. 일반 스킨케어를 받는다면 어떤 종류를 받을 것인가의 항목에서는 20대의 30.5%가 “일반 피부미용 마사지”라고 응답하였으며, 30대의 34.8%, 40대의 35.5%, 50대의 36.8%가 “미용 경락 마사지”라고 응답하여 20대에 비해 다른 연령대에서 미용 경락마사지의 선호도가 높았다($p < 0.01$). 그러나, 일반 스킨케어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문제성 피부에 효과가 탁월할 것 같아서”와 “안전하고 간편할 것 같아서” 두 가지의 항목이 모든 군에서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일반 스킨케어 후 기대효과는 20대의 4.7%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답하였으나 모든 연령대의 70% 이상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하여 연령대별 차이는 없었다. 일반 스킨케어를 받고 싶은 이유로 20대는 “피부미용 효과가 뛰어날 것 같아서”가 32.3%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50대에서는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서”가 3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연령대별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17. 자가 피부관리자의 연령대별 일반 스킨케어 선호도

	20대 (n=127)	30대 (n=23)	40대 (n=31)	50대 (n=19)	p-value
일반 스킨케어 시 선호 시술 종류					
일반 피부미용 마사지	39 (30.5)	6 (26.1)	8 (25.8)	5 (26.3)	0.001**
아로마 마사지	24 (18.8)	1 (4.3)	5 (16.1)	3 (15.8)	
미용경락 마사지	35 (27.3)	8 (34.8)	11 (35.5)	7 (36.8)	
림프 마사지	2 (1.6)	0 (0.0)	7 (22.6)	1 (5.3)	
기기를 병행한 피부 마사지	25 (19.5)	8 (34.8)	0 (0.0)	3 (15.8)	
기타	3 (2.3)	0 (0.0)	0 (0.0)	0 (0.0)	
일반 스킨케어 선호 이유					
문제성 피부에 효과가 탁월할 것 같아서	40 (28.4)	12 (46.2)	15 (46.9)	6 (31.6)	0.072
안전하고 간편할 것 같아서	65 (46.1)	8 (30.8)	12 (37.5)	10 (52.6)	
가격대비 만족	14 (9.9)	5 (19.2)	5 (15.6)	1 (5.3)	
신뢰할 수 있다	22 (15.6)	1 (3.8)	0 (0.0)	2 (10.5)	
일반 스킨케어 후 기대효과					
매우 효과 있을 것이다	12 (9.4)	0 (0.0)	7 (22.6)	3 (15.8)	0.247
효과 있을 것이다	84 (66.1)	18 (78.3)	22 (71.0)	14 (73.7)	
보통일 것이다	25 (19.7)	4 (17.4)	2 (6.5)	2 (10.5)	
효과없을 것이다	2 (1.6)	1 (4.3)	0 (0.0)	0 (0.0)	
매우 효과 없을 것이다	4 (3.1)	0 (0.0)	0 (0.0)	0 (0.0)	
일반 스킨케어를 받고 싶은 이유					
피부미용 효과가 뛰어날 것 같아서	41 (32.3)	7 (30.4)	12 (38.7)	6 (31.6)	0.467
전문가의 관리가 신뢰가 가서	40 (31.5)	4 (17.4)	5 (16.1)	3 (15.8)	
효능, 효과가 확실할 것 같아서	20 (15.7)	4 (17.4)	3 (9.7)	2 (10.5)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21 (16.5)	7 (30.4)	8 (25.8)	7 (36.8)	
체형관리에 좋을 것 같아서	5 (3.9)	1 (4.3)	3 (9.7)	1 (5.3)	

¹⁾ : N(%)

P-value was measured by chi-square test

* p<0.05 ** p<0.01 *** p<0.00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11년 1월 24일부터 3월 19일까지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20대~50대 여성을 대상으로 메디컬 스킨케어 경험이 있는 137명과 일반스킨케어 경험이 있는 151명, 자가관리를 하는 200명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설문조사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전체 대상자의 64.4%는 20대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14.5%, 40대 13.2%, 50대는 7.9%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213명인 40.4%가 학생이었으며, 주부가 105명으로 20.0%에 해당하였다. 피부관리 행태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자가관리”가 20대 59.0%, 30대 42.4%, 40대 51.7%, 50대 52.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해 연령대와 상관없이 비슷한 관리 행태를 보였다.

피부미용에 대한 관심 정도는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관심도가 유의하게 높았다($p=0.005$). 현재 피부 문제점에서는 20대가 “여드름, 넓은 모공”이 34.0%, 30대는 “색소침착”이 37.9%, 40대와 50대는 “주름, 탄력저하”가 각 60.0%와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나 연령대에 따라 느끼는 피부 문제점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0$).

2. 메디컬 스킨케어 관리 기간은 20대가 3개월 미만인 44.9%, 50대는 3년

이상이 37.5%로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관리 기간이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p<0.000$). 메디컬 스킨케어 종류는 모든 연령대에서 IPL을 가장 선호하였다. 위의 기술을 선호하는 이유는 모든 연령대에서 문제성 피부에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직업에 따른 메디컬 스킨케어 이용 경험을 비교한 결과 선호하는 메디컬 스킨케어의 종류에서는 학생의 34.2%가 “여드름 치료”라고 답하였으며, 다른 직업에서는 “IPL”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다($p<0.000$). 또한 월 평균 500만원 이상인 대상자가 다른 소득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p<0.000$), 관리기간 역시 다른 소득군에 비해 유의하게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p<0.000$). 한편 기타 소득군이 IPL 선호도가 가장 높은 반면, 월 평균 소득 500만원 이상군은 레이저 필링에 대한 선호도가 유의하게 높았다($p<0.000$).

3. 일반 스킨케어 관리 기간 역시 연령대가 높을수록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00$). 직업별 일반 스킨케어 이용경험의 경우 “일반 피부미용 마사지”가 높은 선호비율을 차지해 직업별 차이가 없었다($p=0.196$).

또한 평균 소득의 경우 소득이 높은 경우 그 기간이 유의하게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p<0.000$). 일반 스킨케어 이용 만족도의 경우 일반 스킨케어 효과정도는 모든 연령대에서 “효과가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4. 연령대에 따른 자가 피부관리 행태를 비교한 결과 자가 피부 중 가장 중요한 관리법으로는 “기초클렌징과 각질 제거를 위한 딥클렌징”이 20대의

48.8%, 30대의 39.1%, 40대의 35.5%로 가장 높았으며, 자가 피부관리가 피부에 미치는 효과에서는 “매우 효과가 있다”가 20대에서 3.3%로 30~50대의 20.0% 응답률보다 현저하게 낮아 20대에서 자가 피부관리가 피부에 미치는 효과가 적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0$).

전문 피부관리를 받지 않는 이유로 월 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인 경우 비용적인 문제라고 답한 응답자가 48.2%로 다른 소득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0.000$). 자가 피부관리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월 소득이 높을수록 그 비율이 높은 편이었으며($p<0.000$), 30대 및 40대 역시 20대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0.000$).

한편 직업의 경우 주부가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반면, 서비스업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으며($p=0.000$), 소득이 아주 낮거나 높은 경우 자가 피부관리 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음을 알 수 있다($p=0.000$).

5. 자가 피부관리자의 메디컬 스킨케어 선호도에서는 20대는 “해초박피, 알라딘필링, MTS”가 24.4%로, 30대는 “IPL, 레이저 토닝”이 34.8%, 40대와 50대는 “RF 고주파”가 각 32.3%, 3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 스킨케어 선호도에서는 20대의 30.5%가 “일반 피부미용 마사지”라고 응답하였으며, 30대의 34.8%, 40대의 35.5%, 50대의 36.8%가 “미용 경락 마사지”라고 응답하여 20대에 비해 다른 연령대에서 미용 경락마사지의 선호도가 높았다($p<0.001$).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본 결과 대부분의 여성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자가관리, 일반 스킨케어, 메디컬 스킨케어의 순으로 관리를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연령대와 소득, 직업에 따라 선호하는 스킨케어 시스템이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일반 스킨케어 또는 메디컬 스킨케어의 재 이용의사를 묻는 설문에서는 두 군 모두 높은 재 이용률을 나타내었다.

현대 사회는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의 발전과 함께 우리의 생활수준과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여성들의 “미”에 관한 기준은 내면의 아름다움과 함께 깨끗한 피부 등의 외모적인 기준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현재 피부관리 시장은 크게 발전하고 있고 좀 더 넓은 영역을 키워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피부관리 시장은 단순한 피부관리만 진행하던 초창기의 피부관리실에서 벗어나 고유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등의 그 형태가 매우 세분화 되었다. 하지만 현재 여러 스킨케어 시장과 각 유형에 따른 정확한 인식과 만족도에 대한 인식이 확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들의 피부에 대한 관심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욕구와 기호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기술적인 발전과 더불어 고객의 필요조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소비자에게 효율적인 스킨케어 시스템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스킨케어 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

본 연구는 일반 스킨케어와 메디컬 스킨케어, 자가관리에 관한 선호도와 만족도 조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효율적인 스킨케어 이용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피부미용산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스킨케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

을 가진다.

첫째, 조사 대상자를 20~50대 여성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전국적인 표본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점을 가진다.

둘째, 조사 대상자를 20~50대 여성으로 선정하였고,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자를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전국적인 표본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점을 지닌다.

셋째, 스킨케어 경험과 만족도 및 자가관리의 인식도와 만족도를 여러 변수로 측정 하였으며 조사자의 인지적 측면에서 접근하였으므로 그 구체적인 영향정도를 파악하는데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넷째, 본 연구를 통한 향후 연구에서 더욱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자의 구체적인 이용경험을 제시하고 폭 넓은 표본설정으로 현재의 본 연구특성이 향후에는 어떻게 변화되어 지는지에 대한 차이를 검증하는 연구로 활용되기 바란다.

참고문헌

- 김명숙. 2003. 피부관리학, 현문사 p67
- 김주원 외. 2011. 해부생리학, 서원미디어 p134
- 김영미. 2004. 메디컬 스킨케어2, 임송 p76
- 신경미. 2006. 메디컬 에스테틱의 현황, 에스프로 p112
- 이혜영 외. 2007. 피부과학, 군자출판사 p156
- 이정옥. 1998. 피부미용학개론, 학문사 p177
- 정명아. 2009. 피부과학, 블루피쉬 p102
- 정종영 외. 2006. 아틀라스 피부관리학, 엠디월드 p108
- 천병수 외. 2010. 피부과학, 유한문화사 p66
- 황영옥 외. 2003. 타이마사지의 이론과 실제, 동서교류 p5
- 김금란. 미용분야의 직무 특성이 미용전문가의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2009;15(2):25-37
- 권혜영. 고객의 피부관리실 이용행태와 서비스 향상 방안 연구. 한국 피부미용 향장학회지 2009;15(2):31-59
- 손현진, 일부지역 여성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부관리실 이용 실태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피부미용 향장학회지 2009;15(2):39-57
- 이윤수. 피부관리실을 찾는 고객의 피부관리 선호도 연구, 한국두피모발미용학회지 2006;12(1):12-25
- 정보연. 피부미용실에서의 피부미용기기 사용실태 연구, 대한피부미용학회지

2010;18(4):125-143

제갈명. 직장 여성들의 피부관리에 대한 인식 및 태도. 한국미용학회
지 2003;19(2):47-55

김경희. 2007. 연령에 따른 여성의 녹차 피부미용 인식과 선호도 연구, 성신
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숙은. 2006. 성인남성의 피부지식과 피부건강관리 행위에 관한 연구, 성신
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수빈. 2008. 여성들의 피부미용에 대한 인식과 관리, 숙명여자대학교 원격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지영. 2008. 사후관리에 의한 스킨케어에서 필링의 효과와 만족도 조사,
중앙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승희. 2008. 여대생의 자외선 차단제 제형별 효과에 따른 피부변화 연구,
서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미. 2007. 메디컬 스킨케어에 대한 인식과 지불의사 가격연구, 연세대학
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현정. 2010. 피부관리실의 이용실태 및 개선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보건복지가족부. 2009. 신성장동력 산업 비즈니스 전략

송미경. 2007. 메디컬 에스테틱과 일반 에스테틱의 이용실태와 고객만족도에
관한 비교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현진. 2008. 여성들의 피부관리실 이용 실태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원. 2009. 여성들의 피부관리에 대한 인식 및 선호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수진. 2008. 여성들의 피부 미백에 대한 인식과 행태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란. 2007. 경락마사지가 중년여성의 혈청, 에스트로겐, 갱년기 증상, 피로 및 우울에 미치는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소영. 2010. 메디컬 스킨케어의 이용실태 및 병원선택 속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지윤. 2008. 의료관광특구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오영인. 2011. 우리나라 의료관광 만족도와 충성도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의료 서비스와 관광 서비스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향진. 2003. 아로마 오일 마사지가 초산부의 분만통증과 불안 및 분만경험에 미치는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미영. 2002. 발 마사지가 개복술 환자의 통증불안 수면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은진. 2000. 성인남성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화장품 구매행동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성임. 2009. 성인 여성의 피부유형에 따른 식이섭취와 혈중 지질농도, 철분지표 및 항산화 영양상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은정. 2005. 메디컬 스킨케어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사회문화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은정. 2010. 남성들의 메디컬 스킨케어와 미용성형의 인식 및 실태조사, 서경대학교 미용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진이. 2007. 여성의 피부건강상태 및 관련 생활 형태의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연숙. 2005. 성인여성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피부관리 및 체형조리실태 조사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도숙. 2005. 피부노화방지 효율적 관리 방법 연구, 중앙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 ABSTRACT

Consumer Preference and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Type of Skin Care in the Study

Lee, You-Min

Department of Cultural Industry

(Skin Care and Obesity Management Major)

Graduate School of Cultural Industry

Sungshin Women's University

As the modern society develops and participation rate of women in the society has increased, not only the interest for the basic necessities of life but also interests i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and enjoying leisure are increasing. Standard of beauty for women varies and appearance has become one of the method and standard of expressing oneself. In order to maintain beauty and youth, women's interest in skin care is rapidly increasing as skin care has a great impact o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This study was held in survey form from January 24th to March 19th, 2011 for 20 to 50 years old women who live near the capital area. Among 526 women, 137 women had experienced medical skin care, 151 women had general skin care and 200 women had self-care. Change in consumer behavior for cosmetics was analyzed through the skin care preference and satisfaction survey.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version 15.0, SPSS Inc., Illinois, USA) was used to analyze the statistical data. Study results are listed below.

1. 64.4% of total subjects were in their twenties, 14.5% were in their thirties, 13.2% were in forties, and 7.9% were in fifties. Regarding their occupation, 184 women (40.4%) were students, 91 women (20%) were full-time housewives. For the methods of skin care, "self-care" was the majority response for all the age groups, counting for 59.0% of 20s, 42.4% of 30s, 51.7% of 40s, and 52.8% of 50s.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the age groups about daily use of cosmetics. Women in 30s and 40s, counting for 60.6% and 51.7% respectively, responded "functional cosmetics", while 47.2% of 50s answered "oriental medical cosmetics." Therefore, types of daily cosmetics vary between the age groups($p < 0.000$).

There was also visible difference about current skin problems for different age groups. 34% of 20s responded "acne, large pore". 37.9% of 30s responded "pigmentation", 60% and 66.7% of 40s and 50s responded "wrinkle and lacking elasticity"($p<0.000$).

2. Regarding the types of medical skin care, IPL was preferred by all the age group women because of its effectiveness for troubled skin. Question about medical skin care expert's expertise, all age group women's majority response was "they are expert." 70.4% of 20s, 60% of 30s, 72.7% of 40s and 87.5% of 50s responded "effective" for effectiveness of medical skin care. Generally, regardless of age, women found out medical skin care to be effective($p<0.05$).

3. Period of general skin care was longest for the women in 50s and regressively shortens($p<0.000$). Regarding the types of general skin care, unlike women in 50s, women in 20~40 prefer skin care with specialized device($p<0.05$).

4. 48.8% of 20s, 39.1% of 30s, 35.5% of 40s answered "basic cleansing and deep cleansing for exfoliation" as the most important method of

self-care while 42.1% of women in 50s responded "use of effective essence or ampoule." Regarding the effectiveness of self-care on skin, 20% women in 30~50s answered "very effective" while only 3.3% women in 20s responded the same. Women in 20s feel self-care is ineffective($p<0.000$).

5. Preference for medical and general skin care for women with self-care, medical care preference varies among different age groups. 24.4% of 20s want "seaweeds peeling, Aladdin peeling, MTS", 34.8% of 30s want "laser toning", 32.3% and 31.6% of 40s and 50s want "RF high frequency." $(p<0.05)$ On the other hand, preference for general skin care, 30.5% of 20s responded "general skin massage" while 34.8% of 30s, 35.5% of 40s and 36.8% of 50s responded "beauty meridian massage." Preference for meridian massage gets progressively increase for older age groups($p<0.05$). Concerning the expected effectiveness after general skin care, over 70% of women from all age group responded "it will be effective."

Combining all the result, percentage of using skin care service was highest for self-care and lowest for general skin care. Satisfaction for skin care service was very high for all age group women who feel both

medical and general skin care are effective. They said they will use medical skin care again and they responded "comfortable" was the highest response for positive image for general skin care.

This study was held to analyze consumer behavior in order to provide consumers with more efficient skin care system while giving information to the cosmetic industries for further development of efficient and systematic skin care system.

<부 록>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설문지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들의 피부관리 행태에 따른 인식도 및 스킨케어 서비스에 관한 연구' 라는 제목의 석사 논문을 위한 설문 조사를 위하여 작성 되었습니다.

본 설문지의 답은 귀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주관적인 답으로 평소 귀하가 생각하셨던 바를 솔직히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여 주신 모든 사항은 통계법제조 및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절대로 사용되지 않으며 무기명으로 작성 되어 개인에 대한 사항은 절대 보장 됩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잘 활용하여 가치 있는 학술적 연구결과를 얻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1년 3월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지도교수 : 이 은 혜

연구자 : 이 유 민

I.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설문입니다. 해당사항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20~29세 ③ 30~39세 ④ 40~49세 ⑤ 50~59세

2. 귀하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학생 ② 회사원 ③ 자영업 ④ 서비스업 ⑤ 주부
⑥ 전문직 ⑦ 기타()

3.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고졸 ② 대졸(재학포함) ③ 대학원 이상(재학포함)
④ 기타()

4. 귀하는 결혼을 하셨습니까?

- ① 미혼 ② 기혼 ③ 독신(이혼, 사별, 별거)

5. 귀하의 월 평균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100만원 이하 ② 100만원~200만원 ③ 200만원~300만원
④ 300만원~400만원 ⑤ 400만원~500만원 ⑥ 500만원 이상

II. 다음은 귀하의 피부관리 행태 및 인식도에 대한 설문입니다. 해당사항에 체크해 주십시오

1. 귀하의 피부관리 행태는?

- ① 일반 자가 관리 ② 일반 스킨케어 관리 ③ 메디컬 스킨케어 관리

2. 귀하는 평소 어떤 화장품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 ① 일반 화장품 ② 기능성 화장품 ③ 한방 화장품
④ 천연 화장품 ⑤ 기타 ()

3. 귀하가 피부미용에 투자하는 금액은(1개월 기준) 어느정도입니까?

- ① 5만원 이하 ② 5만원~10만원 ③ 10만원~20만원 ④ 20만원~30만원
⑤ 30만원 이상

4. 귀하는 평소 피부관리를 위한 화장품을 주로 어디서 구입하십니까?

- ① 백화점 ② 인터넷 쇼핑몰 ③ 화장품 전문점 ④ 방문판매 ⑤ 대형마트 ⑥ 병의원

5. 귀하에게 화장품 구매 시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 ① 브랜드 이미지 ② 주변의 권유 및 사용 후기를 보고 ③ 광고모델의 인지도 ④ 판매원의 권유 ⑤ 광고 내용과 호기심 ⑥ 가격

6. 귀하가 피부미용 신제품이나 정보를 가장 먼저 접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 ① 백화점 ② 인터넷 쇼핑몰 ③ 신문 잡지 ④ TV광고 ⑤ 화장품 전문점

7. 귀하는 평소 피부미용에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습니까?

- ① 매우 없다 ② 없다 ③ 보통이다 ④ 많다 ⑤ 매우 많다

8. 귀하의 피부유형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중성피부 ② 건성피부 ③ 지성피부 ④ 민감성피부 ⑤ 복합성피부
⑥ 여드름피부 ⑦ 모르겠음

9. 귀하의 현재 피부상태는 어떤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좋다 ② 약간 좋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10. 현재 귀하의 피부에 문제점(신경쓰는 문제)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여드름, 넓은 모공 ② 색소침착(기미, 주근깨, 잡티) ③ 주름, 탄력저하
④ 예민, 모세혈관 확장 ⑤ 수분 부족 ⑥ 칙칙한 얼굴 톤

11. 귀하는 피부의 문제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으십니까?

4. 귀하가 선호하는 메디컬 스킨케어는 무엇입니까? (중복체크 가능)

- ① 해초박피 ② 호박필링 ③ TCA필링 ④ 쿼스필링 ⑤ 글리콜릭산 필링 ⑥ 크리스탈필링 ⑦ 다이아몬드필링 ⑧ IPL ⑨ RF고주파 ⑩ Vitaliont ⑪ 여드름치료 ⑫ 레이저필링

5. 위의 시술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중복체크 가능)

- ① 문제성 피부에 효과가 탁월하다 ② 보습관리에 좋고 안전하고 간편하다 ③ 가격대비 만족(저렴한 비용)하다 ④ 신뢰할 수 있다 ⑤ 기타()

6. 귀하는 메디컬스킨케어 관리 후 어느 정도 효과를 느끼고 계십니까?

- ① 매우 효과 있다 ② 효과가 있다 ③ 보통이다 ④ 효과가 없다 ⑤ 매우 효과 없다

7. 귀하는 메디컬 스킨케어 관리실에서 근무하는 관리사들의 전문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전문성이 있다 ② 전문성이 있다 ③ 보통이다 ④ 전문성이 없다 ⑤ 전혀 전문성이 없다

8. 귀하가 메디컬 스킨케어를 받을 때 느껴지는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 ① 청결하다 ② 불결하다 ③ 편안하다 ④ 불편하다 ⑤ 기타 ()

9. 메디컬스킨케어를 다시 이용하겠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

9-1.다시 이용하신다면 그렇게 생각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효과가 탁월하다 ② 통증이 없다
비용이 비싸다 ③ 비용이 저렴하다
④ 신뢰할 수 있다 ⑤ 서비스가 좋다

9-2.다시 이용하지 않겠다면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효과가 없다 ② 통증이 있다 ③
비용이 비싸다 ④ 신뢰할 수 없다
⑤ 서비스가 나쁘다

10. 귀하는 메디컬 스킨케어 관리를 주변 사람에게 권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10-1.아니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관리 후 효과가 없어서 ② 가격이 비싸서
③ 서비스가 좋지 않아서 ④ 기타

IV. 일반 스킨케어 이용경험에 관항 문항입니다.

1. 귀하는 어떠한 경유로 일반 스킨케어를 알게 되었습니까?

- ① 인터넷 ② 지인의 권유 ③ 신문, 잡지 광고 ④ TV ⑤ 기타

2. 귀하가 일반 스킨케어를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전문피부관리실에 대한 신뢰감 ② 관리 프로그램의 다양성 ③ 효능성,

효과가 확실해서 ④ 주변 지인의 권유로

3. 귀하는 일반 스킨케어 서비스를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 ① 3개월 미만 ② 3개월~6개월 미만 ③ 6개월~12개월 미만 ④ 1년~3년 미만 ⑤ 3년 이상

4. 귀하가 선호하는 일반스킨케어는 무엇입니까? (중복체크 가능)

- ① 일반 피부미용마사지(보습, 탄력, 미백 등) ② 아로마 마사지 ③ 미용 경락 마사지 ④ 림프마사지 ⑤ 기기를 병행한 관리

5. 위의 관리를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복체크 가능)

- ① 문제성 피부의 개선 효과가 탁월하다 ② 보습관리에 좋고 안전하고 간편하다 ③ 가격대비 만족(저렴한 비용)하다 ④ 신뢰할 수 있다 ⑤ 기타()

6. 귀하는 일반 스킨케어 관리 후 어느 정도 효과를 느끼고 계십니까?

- ① 매우 효과 있다 ② 효과가 있다 ③ 보통이다 ④ 효과가 없다 ⑤ 매우 효과 없다

7. 귀하는 일반 스킨케어 관리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전문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전문성이 있다 ② 전문성이 있다 ③ 보통이다 ④ 전문성이 없다 ⑤ 전혀 전문성이 없다

8. 귀하가 일반 스킨케어를 받을 때 느껴지는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 ① 청결하다 ② 불결하다 ③ 편안하다 ④ 불편하다 ⑤ 기타 ()

9. 일반 스킨케어를 다시 이용하겠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9-1.다시 이용하신다면 그렇게 생각해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효과가 탁월하다 ② 통증이 없다
- ③ 비용이 저렴하다 ④ 신뢰할 수 있다
- ⑤ 서비스가 좋다

↓↓↓

9-2.다시 이용하지 않겠다고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효과가 없다 ② 통증이 있다
- ③ 비용이 비싸다 ④ 신뢰할 수 없다
- ⑤ 서비스가 나쁘다

10. 귀하는 일반 스킨케어 주변 사람에게 관리를 다른 사람에게 권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10-1.아니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관리 후 효과가 없어서 ② 가격이 비싸서
- ③ 서비스가 좋지 않아서 ④ 기타

V. 자가 피부 관리에 해당하는 문항입니다.

1. 귀하가 전문 피부 관리를 서비스를 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중복 선택가능)

- ①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② 시간이 없어서 ③ 신뢰할 수 없어서 ④ 거부감이 들어서
- ⑤ 자가 관리만으로 충분해서 ⑥ 집안일이나 직장일 때문에 ⑦ 기타()

2. 귀하는 자가 관리 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관리법은 무엇입니까?

- ① 색조화장품을 지우기 위한 기초 클렌징 ② 기초클렌징과 각질 제거를 위

한 딥클린징 ③ 미백이나 피지, 탄력을 위해 효과적인 에센스나 앰플이용
④ 정기적인 마사지나 마스크 팩 이용 ⑤ 자가 관리용 미용기기 사용

3. 귀하는 자가관리가 피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효과가 있다 ② 효과가 있다 ③ 보통이다 ④ 효과가 없다 ⑤
전혀 효과가 없다

4. 귀하가 평상시 사용하고 있는 기초 화장품을 모두 체크해주시요.

① 전용 클린싱 ② 에센스나 앰플 ③ 아이크림 ④ 마사지 크림 ⑤ 화
장수 혹은 로션 ⑥ 자외선차단제 ⑦ 영양크림 ⑧ 마스크팩

**5. 자가관리를 위한 화장품 사용 시 한 달을 기준으로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을 순서대로 세 가지 체크 해 주십시오. (> > >)**

① 스킨 ② 에센스 ③ 로션 ④ 아이크림 ⑤ 영양크림 ⑥ 선크림
⑦ 마사지크림 ⑧ 마스크팩

**6. 귀하가 메디컬 스킨케어를 시술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선호하는 시술
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① 헤초박피,알라딘필링, MTS(모공 및 흉터치료 시술) ② TCA,콤스필링
(가벼운 각질제거 시술) ③ IPL,레이저 토닝(기미 등 색소 치료) ④ RF고
주파(탄력관리) ⑤ Vitaliont(비타민 공급 등 미백, 보습관리) ⑥ 여드름
치료 ⑦기타 ()

7. 메디컬 스킨케어 시술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문제성피부에 효과가 탁월할 것 같다 ② 안전하고 간편할 것이다 ③ 가
격대비 만족(저렴한 비용)할 것이다 ④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 설문 에 참여 해주 셔서 감사 합 니 다 *